

삶,
수필이
되다

후
원



한국과학창의재단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시
행



재단법인수성문화재단
범어도서관

이 사업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삶, 수필이 되다

범어도서관 2018 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

과학·예술융합프로그램 : 쓰다(Write)

<삶, 수필이 되다>

대구 수성구 지역의 역사·문화·여행 또는 참여자 본인의 생애와 관련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마음 속 이야기를 수필 형식으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기 간 2018년 8월 24일(금) ~ 11월 9일(금)
시 행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범어도서관
강 사 박현규(수필가)
참여자 강청자 강희자 김명암 김수남 김순동 문신자 박순금
서인수 이길영 이병숙 이예경 임향식 정경남 정충양

후 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장 소 범어도서관 문화강좌4실(4층)

소확행(小確幸)

박헌규

그곳에는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행복도 있었다. 좀 덜 붐빈다는 오전 이른 시간을 택해 아내와 같이 마트에 갔다. 자연스럽게 아내는 앞서고 나는 뒤에서 카트기를 밀고 따라다녔다.

여태까지 이런 일은 좀체 없었다. 평소 나는 아내와 같이 마트나 시장에 가는 것을 꺼렸다. 어찌다 피치 못할 사정, 명절장이나 제사장 등 무거운 짐 때문에 같이 가는 날에는 서로 얼굴 붉히고 돌아올 때가 더러 있었다. 서둘러 살 것 사고 오면 될 것을 아내는 점포마다 기웃거리면서 가격만 물어보고 돌아서기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나는 아내에게 언짢은 눈총을 쏘아붙이곤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세월 탓인지, 나이 탓인지 내 심경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그 심도를 정확히 짚 수는 없지만, 나 스스로 알아챌 정도까지 되었으니 소위 말하는 팔불출 예비단계에 진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더 기이한 것은 시방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 크게 거북스럽지가 않다는 것이다.

정확히 다섯 달 전이다. 나는 나의 인생 전반기 삶을 마감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 퇴근, 사십 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머리에 현기증이 일 정도로 돌고 돌았다. 변변치 못한 삶

탓인지 미련도, 아쉬움도, 후회도 없다. 퇴직 후의 삶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두려움 같은 것은 더더욱 없다. 가던 길 잠시 멈추고 뒤를 한 번 돌아보는 것 같다.

가족, 친지, 누구라도 불러주면 언제든 관심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아 참 좋다. 아침에 눈 뜨면 햇살 가득 퍼지는 숲길,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길을 걷고 있는 기분이다. 오늘 시작 예감이 좋으니 내일은 더 아름다울 것 같아 삶의 즐거움은 배가 된다. 이제부터는 좋은 나쁜든 시작 뒤에 오는 결과가 버거워 새로운 삶의 계획 같은 것은 마음에 담지 않고 살아가려 한다.

마트 안 점포 곳곳에는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그러면서도 어느 것 하나 천잡하거나 밉살스러운 데가 없다. 갓 시집온 새색시의 몸가짐처럼 사람도 물건도 모두가 깨끗하고 정갈하다. 즐비한 구경 거리에 몸은 바빠도 눈은 마냥 즐겁다. 곳곳에 시식코너가 있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씩 집어 맛보는 허가 느끼는 쾌락은 덤이다.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켜놓고 아내와 나란히 앉았다. 이른 시간이라 우리가 첫 손님인 듯했다. 아내에게 "우리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제?" 아내가 피식 웃는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더니 떡볶이 접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아이들에게 전송한다. 곧 "ㅎㅎㅎ..., 우리 엄마, 아빠 짱!" 회신이 오고, "너희 아버지 이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아내가 답신 문자를 날린다. 두어 점 먹다 기분이 묘했다. 아내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니 나는 덩달아 행복함을 느낀다. 입안에 든 떡이 맵지 않고 달다.

이른 시간 떡볶이 한 접시를 앞에 놓고 우리 부부가 부리는 여유는 분명히 주책도 아니고, 객기도 아니다. 작은 행복이었다. 문득 출처

불명의 관용구 한 구절이 떠올랐다. ‘시간 있으니 돈이 없고, 돈 있으니 시간이 없더라. 그러다 어느 날, 시간과 돈이 찾아드니 건강이 모자라더라.’ 그렇다. 시간, 돈, 건강,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다. 귀하기에 셋을 다 가지기에는 어려웠던가 보다.

하지만, 남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오늘 나는 웬지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만의 착각이라도 좋다. 평일 이 시간에 아내와 같이 운동하는 기분으로 사십 분 가까이 걸어서 이곳에 왔다. 그리고 내 돈 주고 떡볶이 한 접시를 사서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는가.

어디 이것뿐인가. 집 앞, 오 일마다 서는 장날이 되면 아침부터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아내에게 장에 나갈 채비를 재촉하고 내가 앞장을 선다. 장바구니는 으레 내 차지가 되어 누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구분 키조차 어려울 정도로 발걸음이 빨라진다. ‘볼일 없는 장, 할 일 없어 다닌다.’라고 가봐야 꼭 사야하는 것은 없다. 시장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냥 눈요기하다가 마음 가고 눈 가는 것이 있으면 함께 고르고, 흥정을 하고, 몇 푼의 에누리에 같이 즐거움을 느낄 뿐이다. 마치 유년 시절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시골 장에서 낫선 것들에 눈이 흘러 너른 장터를 몇 번이나 돌고 돌아왔던 그 기분과 흡사하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장마당 가는 날에 비 오고 바람 부는 곳은 날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곳에 가면 언제든 나의 따뜻한 가슴과 아내의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하니까.

차례

강청자 잊지 못할 회 한 접시_ 12

감나무_ 15

강희자 봄이_ 20

신천_ 24

김명암 회상_28

기적소리_ 31

시어머님_ 34

김수남 폭풍이 지나가고_ 38

빛으로 내게 온 일상_ 42

김순동 콩나물_48

상생_ 51

베란다 고추_ 55

문선자 땀을 들이다_ 60

순간적 기록_ 63

박순금 오르지 못한 대청봉_ 68

작은 행복_ 70

차례

- 서인수** 사랑의 힘_ 74
 떡보의 삶_ 78
- 이길영** 미로(迷路)_ 82
- 이병숙** 회색빛 웃음_88
 잔챙이_ 90
- 이예경** 알뜰한 당신_ 96
 버킷리스트(Bucket list)_ 100
- 임향식** 감서리_106
 바람의 행적_ 110
- 정경남** 동상이몽(同床異夢)_ 116
 집에 가는 길_ 119
- 정충양** 가을의 상념_ 124
 인생 우(右)클릭_ 126
 시골영감 상경기_ 129

강청자

III

「잊지 못할 회 한 접시」

「감나무」

잊지 못할 회 한 접시

강청자

무덤던 지난여름 딸아이와 함께 마산 돌 섬을 찾았다. 입시학원에 서는 일 년 중 가장 더운 시기 팔월 첫째 주에 방학을 한다. 기간은 한 주간이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기이다.

우리 모녀는 어렵게 시간을 만들어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딸 머리도 좀 식힐 겸 해서 마산 돌 섬을 다녀오기로 했다. 간단하게 집에서 만든 김밥과 물 한 병을 챙겨 서부 정류장에 가서 마산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새장에 갇힌 새가 문을 열고 밖에 나오면 높은 창공을 훨훨 날르듯 천리만리 나르고 싶은 마음이었다. 차창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 줄기 소낙비가 내리듯 시원했다. 온 들판은 푸른 바다 물결치듯 출렁이고, 가로수 푸른 잎은 활개를 치는 듯 별천지를 만난 것 같았다. 마음은 마산까지 가는 내내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광경을 응시한 채 달렸다. 우리 모녀는 눈앞에 펼쳐지는 풍광에 시선을 매달고 말이 없었다. 집에서 나올 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공부와 시험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막상 차에 앉으니 공부 외에는 별다른 얘깃거리가 없었다. 마산 터미널에 도착해서 다시 배를 타고 돌섬까지 갔다.

돌섬 산책로를 걸으면서 ‘지난해 예비고사를 잘못 쳐서 이렇게 고

생한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랐다. 이어 혀끝에서 맴도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목구멍으로 삼키곤 했다. 또다시 다짐을 했다. ‘어렵게 여기까지 나왔으니 다 잊어버리자. 여행의 기쁘고 즐거운 마음만 가지자’를 되새기며 힘들게 걸었다. 정상에 올라 ‘가고파’를 쓴 작가 이 은상 선생님의 시비 앞에 모녀가 앉아 먼 바다를 내려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둘이서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서로의 힘든 마음을 너무 잘 안다. 함께 ‘가고파’를 불렀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지난날 어릴 때 강가에서 같이 고기 잡던 시절, 뜰 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에서 양을 몰고 풀을 뜯기며 짓을 짜던 시절이 생각났다. 둘이서 손을 꼭 잡고 다짐을 했다. 그래 하면 돼,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최선을 다하자. 하면서 꼭 안아 주었다.

딸은 "엄마 미안해 열심히 할게요."

"그래 고맙다."라고 말했다.

참 오랜만에 둘이서 얼굴빛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섬 둘레를 한 바퀴 돌고 내려와 마산 시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하고, 회를 한 접시 시켜서 먹었다. 딸이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한 점이라도 더 먹으라고 나는 먹는 척만 했다. 상추 깻잎 마늘 매운 고추를 얹어서 고기 초장에 찍어 매워서 호호호 하면서 땀을 흘려가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미안했었다. 너무 힘들게 살던 때라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해주지 못한 엄마가 미안하다. 말밖에 무슨 말을 더

하리오. 그 하루가 평생에 잊히지 않고 지금도 딸은 회만 먹으면 그때 그 회가 지금껏 먹어본 회 중에서 가장 맛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불안한 마음 안고 쉬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공부하는 딸에게 잠시라도 휴식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참 좋았었다. 자식 고생이 내 고생이고 자식 아픔이 내 아픔인 걸..... 열심히 최선을 다 하기를 기도한다.

감나무

강청자

큰 방문 앞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다. 올해는 감이 제법 많이 열려 하루하루 다르게 얼굴을 드러내며 익어가고 있다. 혹여 비바람에 떨어질세라 나무는 팔이 아픈 줄도 모르고 휘어지도록 잡고 있다. 마치 익은 사랑이 흥시가 되어도 익지 못한 뚝은 자식 효도하지 못한 것 아쉬운 마음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모가 된 나는 과연 사랑이 익어 흥시가 되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가을 한가위를 맞게 된다. 오곡이 무르익은 풍성한 한가위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아 멀리 있던 자녀들이 고향을 찾아오는 발걸음은 더욱더 바쁘게 움직인다. 우리 내외는 텃밭에 나가 여름 내 키워놓은 들깨잎, 배추, 부추, 무, 풋고추를 따서 음식 만들 준비를 다 해놓고, 주일이라 교회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다. 이웃에는 전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점심을 먹고 서둘러 쌀을 빵아 송편을 빚었다. 작년에는 아들과 며늘아기 그리고 손녀와 함께 참 재미있는 송편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혼자서 만드니 외롭고 쓸쓸함이 몰려온다. 송편모양도 똑같은 모양만 나온다. 외롭고 쓸쓸함이 나를 닮았나 보다.

며늘아가 고3 수험생을 두고 내려온다고 하기에 오지 말라고 했지만, 시택이기에 신경이 쓰이는지 내려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상

포진이 와서 못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라며 전화가 왔다. "그래 안 와도 괜찮다. 빨리 병원에 가라."고 했다. 손자 수시 원서 접수하느라고 신경을 써서 온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빨리 나아가야 할 텐데... 미리 준비해둔 갈비찜과 잡채 재료를 아들과 손녀가 대신 가지고 왔다. 딸들도 시택을 다녀 7시경에 도착했다. 외손녀들은 하나도 오지 않고 외손자 하나만 왔다. 남편은 외손자와 악수를 하고 안아주면서 축하를 해 주었다. 이번에 S대 의대 전면 장학생이 되어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축하금도 주었다. 저녁상을 정성껏 차려 함께 둘러앉아 감사기도를 했다. 인생 여정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돌아보는 삶을 실천하며 산 것이 아닐까 싶다.

"생일을 축하하고 건강하세요. 잘 살았어요"라고 한마디 했다. 남편이 "참, 여기까지 살아오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너희들이 잘 살아 준 것이 나의 기쁨이며 자랑이다. 여보 고맙고, 준비하느라 고생했소. 너희들 모두 고맙다."라고 하셨다.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를 올려놓고 초를 큰 것 일곱 개 작은 것 아홉 개를 썰고 생일 축하송을 부르고 촛불을 단번에 끄셨다.

"100수 하세요."라고 축하해 주었다. 참 행복해하셨다.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 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는 것이 바로 효를 다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러나 자식은 언제나 익지 못한 뚝은 감인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족 사랑인 것을 알게 된다. 가정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 안에서 살림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며느라기가 빨리 완쾌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강희자

III

「봄이」

「신천」

봄이

강희자

한밤 중 잠자리에서 듣는 빗소리가 아늑하다. 나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만든 고통이 있는가 하면 타인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있고, 전쟁, 경제, 건강, 가정문제, 무지에서 오는 고통도 있다.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 것이다.

남편은 술이 거나하게 취할 때 친구가 아쉬운 소릴 하면 거절을 못하는지 백번쯤 보증을 서줬던 것 같다. 다행히 모두 우리 집을 힘들게 하진 않았고, 두 번은 우리 집을 완전 썩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와 두 딸이 노숙자로 전락하기 직전이었다. 폭풍전야, 백척간두에서 우리 가족을 오들오들 떨게 한 가장이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어느 날 우리 집에 예쁜 강아지가 선물로 왔다. 이름을 '봄이'라고 지었다. 봄이는 겨울의 강추위 같았던 집안 공기를 봄날처럼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다. 강아지 이야기로 가족관계 소통도 이루어지고, 험벗은 마음에 원망이라는 것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주었다.

이년이 지난 어느 날, 봄이가 새끼를 가져 어미개가 되었다. 뱃속에 옹기종기 새 생명이 자랐다. 두 딸은 봄이랑 누워 개의 뱃속을 쓰다듬으며 "네 마리인거 같다 암놈 둘, 숫놈 둘이다." 재잘거리며 마냥

부풀어 있다. 평평하던 배가 부풀어 오르고 꼬물꼬물 육안으로도 보일만큼 움직임이 느껴지더니 드디어 해산날이 다가왔다. 어미는 방구석에 가더니 진통이 오는지 심호흡을 한다. 밤새 고통의 시간이 흘렀다. 나올 듯 말 듯 긴장과 초조함이 새벽까지 이어져 동물병원에 연락했더니 진통이 오래되면 위험하다고 했다. 급히 달려간 동물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새끼 네 마리를 아슬아슬하게 살렸다. 조금만 늦었으면 어미와 새끼 모두를 잃을 뻔했다. 우리 옆집에서는 같은 시기에 집에서 낳다가 어미와 새끼 모두 죽었다.

태어난 새끼는 암놈 둘, 수놈 둘이었다. 어디서 배웠는지 어린 어미가 새끼 젖을 잘도 기른다. 젖이 통통 붙으면 새끼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젖을 물린다. 눈도 못 뜬 새끼들은 어미의 수술한 배를 꺾꺾 발로 누르며 힘차게 젖을 빨았다. 젖이 다 떨어졌다 싶으면 젖을 더 먹으려고 매달리는 새끼를 떼어놓고 배변을 깨끗이 먹어치우고, 새끼들 몸단장을 혀로 닦아 준 뒤 그곳을 나왔다. 수술 한 몸으로도 최선을 다해 자식을 돌보는 어미와,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하면서 살고자 열심히 젖을 빠는 생명들의 치열함이 경이로웠다. 때론 허무가 슬그머니 오다가 저 멀리 달아났다.

지금 어미인 봄이는 14살, 새끼인 연두는 12살이다. 봄이는 집밖의 작은 소리에도 자꾸만 짖는다. 시끄럽다고 하면 '내가 짖겠다는 데, 네가 왜?' 하듯 자기 마음껏 짖는다. 새끼는 우리 눈치를 보며 '엄마 그러지마' 하는 듯 깨문다. 그러면 어미는 분해서 으르렁 거린다. 새끼는 둘째 딸이 너무 예뻐하니까 보답하듯 예쁜 짓만 하려고 노력한다. 봄이는 큰 딸을 은인으로 여긴다. 새끼까지 낳고, 그것을 잊지 말자고 주입시켜서 내가" 잊지 말자 봄, 연두!" 구호를 외쳤다.

개들은 꼭 서열을 정한다고 한다. 내가 누워있으면 살며시 다가와

봄이는 오른쪽에 연두는 왼쪽에 자리를 잡는다. 봄이는 온 몸을 부담스럽게 대고 쓰다듬어 달라고 하고, 연두는 ‘나 여기’ 하듯 살짝 동전 크기만큼만 몸을 갖다 대고 행복을 서로 나누자고 조심스럽게 앉아 있다. 봄이와 연두를 좌청룡, 우백호로 두고 누워 있으면 아득한 봄날 저 푸른 초원에서 파란하늘에 뭉게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는 듯 평안이 내게 넘친다.

새벽에 손바닥 만 한 게 움직인다.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다.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그것이 승낙이 되어서 식구가 늘었다. "장난치며 놀게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정말이지?" 순식간에 방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나왔다.

개들이 나보다 더 고급으로 먹는다. 그래도 아깝지 않다. 자그마한 것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며 여유를 가져본다.

강아지 두 마리가 마치 사자새끼처럼 엮치락뒤치락 한다. 그러다가 바람같이 달린다. 한적한 숲에 데려가서 맘껏 뛰놀게 해주고 싶어 어느날 경남 거창으로 바깥나들이를 갔다. 수승대 숲에 도착하자마자 땅에 내려놓았더니 첫나들이라 오금이 저리는지 움직이지 않는다. 할 수없이 안고 산책을 했다. 사람들은 강아지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관심을 가지고 말을 붙인다.

문득 격세지감을 느끼는 이야기 하나가 떠올라 웃음이 나온다. 어떤 할머니가 자식 집에 다니러 갔다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다 강아지를 더 챙겨서 섭섭한 나머지 ‘2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왔다고....

신천

강희자

우리 집 앞에 신천이 흐른다. 어미오리가 새끼 열 마리쯤을 거느리고 물 위를 헤엄쳐 가는 모습이나 백로 수십여 마리가 동신교 주위에 노니는 진풍경을 보고 한동안 서성일 때가 있다. 사진작가에게 아주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칠성시장 부근에 가면 신천에 새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사시사철 도심 속에서 새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좋다.

신천의 사계는 철마다 다르다. 봄날에는 개나리가 온 세상 별이 다 쏟아진 것처럼 환하게 피어있고, 여름에는 강풍과 폭우로 오리들이 물에서 독으로 나와 불안에 떨고, 겁을 먹은 자라도 엉금엉금 기어간다.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잡초 뿌리 사이에 숨는다. 가을이 되자 하늘에 왜가리가 큰 날개를 펴고 내 머리 위를 지나가더니 오동나무 가지에 앉는다. 그림 속의 새가 된 듯 움직임이 없다. 그 모습이 마치 참선하는 스님 같다.

보름날 밤에는 달도 밝게 빛나고, 우뚝 솟아있는 아파트 불빛, 빌딩의 네온, 가로등, 차들의 행렬 긴 불빛이 물에 비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낸다. 가끔 열렸던 불빛 축제 '루미나리에'와 '연등 축제'는 신천 바로 앞에 사는 내게 특별한 행운이다.

한 겨울 신천 얼음물 속에도 주먹 만 한 오리 새끼가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있었다. 강인한 생명력에 놀라울 뿐이다.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신천을 달렸다. 칠성시장을 지난 뒤 드넓은 금호강과 만나는 지점은 또 다른 풍경이 기다린다. 끝없이 펼쳐진 황톳길에 메밀꽃, 돼지감자 꽃. 눈이 부시도록 핀 연꽃빛 유채꽃이 무리의 아름다움을 한껏 과시한다. 무리하면 갈대를 빼놓을 수 없다. 은빛 갈대가 바람결에 흔들린다. 춤추는 갈대 곁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맛은 두 배, 낭만은 열 배다!

천변에는 걷기 운동을 하거나 뛰어가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 활기가 넘친다. 해가 질 무렵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말 탄 사람을 본 적도 있다.

나는 어릴 때 삼산이수의 고장에서 눈만 뜨면 감천 금모래밭에서 소꿉놀이하고 냇물에서 헤엄치고 살다시피 했었다. 어머니들은 다리 밑에서 빨래를 했다. 추억과 행복을 주는 감천과 신천. 꿈에서도 그곳 맑은 물에서 생시인지 꿈속인지 분간 없이 헤엄치며 돌아다닌다. 초등학교 친구가 감천 해돋이 사진을 자주 보낸다. 나도 신천 풍경을 보낸다. 얼마 전 감천에서 놀던 친구들 모임을 대구 수성못 부근 식당에서 가졌다. 식사 후 신천 구경을 시켜주었다. 친구들은 나보고 장소 선정을 잘했다고 고마워했다. 그들의 추억을 되살려주었기 때문일 터이다.

김명암

III

「회상」
「기적소리」
「시어머님」

회상

김명암

옥상의 창고가 너무 오래되어선지 빗물이 새어 들어온 지가 작년부터다. 수리를 새로 하려고 해도 쌓여 있는 묵은 짐들이 너무 많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겨울 추위도 지나갔고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 정리하기로 했다. 출가하기 전 아이들이 쓰던 잡다한 물건들과 잘 쓰지 않는 웬만한 물건들은 버리기로 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잔소리가 많을 것 같아 운동하러 가고 없는 사이에 부피가 작은 물건들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쪽 구석에 내 힘으로 들기가 무거운 상자가 있어 끙끙거리며 끌어내어 상자를 열었다.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상자 속의 사진에는 내 소중한 지난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어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건장하고 꽤기 넘쳤던 젊은 청년인 남편과, 아기 때부터 개구쟁이 어린이를 지나 소년, 청년으로 변해있는 아이들도 반갑다고 나를 보고 웃고 있다. 어느덧 나는 하던 정리는 팽개쳐두고 주저앉아 옛날 속으로 폭 빠져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내가 스무 살 되던 해에 우리 가족은 시골의 가산을 정리해서 대구로 이사를 왔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전에 우리 곁을 떠나셨고 오빠

가 대구에 직장을 잡으면서 시골에는 엄마와 나 둘 뿐이었다. 효목동이라는 곳에 반양옥 집을 사서 이사를 왔는데 시골뜨기였던 나는 저 멀리서 오는 차만 보아도 너무 겁이 나서 횡단보도도 건너지 못하고 찢찢매던 게 생각난다.

대구라는 도시에 와서 겪은 신기한 일도 참 많았다. 워낙 산촌이었던 내 고향에선 생선회라던가 해삼, 멍게 같은 것은 구경도 못했었다. 해삼은 너무 징그러워 입에 넣기가 망설여졌었지만 막상 먹어보니 맛있었던 것, 양키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예쁜 옷도 구두도 너무 많아 눈으로 보기만 해도 행복했던 것, 부산에 가서 말로만 듣던 바다를 처음 보고 가슴이 벅차 눈물까지 글썽거렸던 일, 친구가 소개한 미팅 장소에서 냉면에 겨자를 덩어리 채 먹고서 맵다는 말도 못 하고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던 일이 지금 떠올려보면 웃음이 인다. 동촌유원지에서 보트를 타면서 처음으로 이성을 느끼며 가슴 두근거렸던 적도 있었다. 그 아름다웠던 젊음 속에 미니 원피스를 입고 긴 끈의 가방을 멘 내가 웃고 서 있었다. 아마 그 땐 그 청춘이 내 곁에 마냥 머물 줄만 알았겠지. 어제인 것 같은 그 시절은 어느새 지나가고 머리는 흰 이슬로 덮여 있고 이마에는 술한 희로애락이 훈장인 양 주름져 있는 초로의 여인이 되어 있다. 황혼이라는 것이 나를 덮고 있고 나는 그 속에서 가는 세월을 아쉬워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나도 평범한 남들처럼 살았다고 위로도 해보지만, 저 가슴속 깊은 그곳에서는 아니라고, 후회 없는 삶을 살지 못한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잠시 동안 나에게 추억의 행복과 아쉬움의 회한을 남게 한 상자 속

의 추억들은 차곡차곡 제자리를 찾아 처음으로 돌아갔다. 순수했었던 20대 미니원피스 차림의 나와 함께...

수리가 끝난 후 정리를 마친 창고의 짐은 반으로 줄었고 깔끔하게 되었지만, 개운해야 할 마음에 허전함이 함께 깃든다.

기적소리

김명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철길 위를 한 가족인 듯한 사람들을 태운 레일 마이크가 지나가고 있다. 오래간만에 찾아가는 고향이라 나는 세월을 뒷걸음쳐 유년 시절을 거닐고 있었다. 아득히 먼 데서부터 기적소리를 울리며 산모퉁이를 돌아 달려오는 기차의 환상에 가슴이 뛰고 있었다.

기적소리는 늘 어린 가슴을 설레게 했다. 저 멀리에 있는 미지의 세계로 데려다 줄 것 같았다. 지금도 그 어린 날의 꿈의 흔적이 내 마음 속에 남아 있어서 가끔 꿈꾸듯이 알 수 없는 다른 세계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아지랑이가 가득히 피어오르는 철길은 내 눈 끝 저 멀리 선 하나가 되었지만,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언제나처럼 다시 두 줄이 되어 있곤 했다. 어린 나는 아연한 마음에 허탈하기도 했지만, 두 줄기 기차길 위에 다시 작은 희망을 얹어 철길 끝 세상을 그리워하고 했다.

오늘은 객지에 흩어져 사는 친구들이 일 년에 한 번씩 고향에서 만나는 날이다. 대구에서도 몇몇 친구들이 마음을 맞추어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같은 곳에서 자란 우리들은 추억도 기억도 같아서 이렇게 만날 때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추억을 모두어 지난 이야기

에 서로가 바쁘고 억양이 센 고향 사투리를 유난스럽게 쓰기도 하면서 한바탕씩 웃고 한다.

마을을 가로질러 놓여있는 기찻길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친구들과 철길에 엮드려 철로에 귀를 대고 기차가 어디쯤 오나 가늠하기도 했고, 좁은 철로선 위를 누가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나 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오는 기차가 보이면 소스라쳐 달아나 다가오는 기차를 보면서 몇 칸이나 꼬리를 달았는지 세어보기도 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기차가 지나갈 때면 그 힘찬 울림에 땅바닥이 진동하고 들풀들과 옥수수대가 꺾어질 듯 마구 흔들리고 했다. 기차가 저 멀리 지나 갈 때까지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리는 가슴을 두 손으로 누르고 진정시키고 했다.

그때의 아이들은 이제 세상 끝을 가고 있는 노년이 되었지만,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누군들 기찻길 옆 들풀처럼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고난이 없었겠는가. 피할 수 없는 풍상을 겪으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은 모두 다 가슴속에 묻어두고 친구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반가움에 모두가 들뜬 모습이다.

우리 고향에 기차가 운행되게 된 것은 지역의 특산물인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서였다. 연료를 석탄에 의존하던 시대에 우리 고향의 은성광업소는 석탄 생산량이 전국 1~2위를 차지하던 굴지의 광산이었는데 경제 성장으로 연료가 전기와 가스로 전환되면서 석탄 산업의 몰락과 함께 기차선로도 폐선이 되었다. 우리들의 추억이 서려있는 기차역사는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관광객들을 위한 레일바이크를 운행하는 역으로 변신하였고 매표소가 있던 자리에는 역무원들이 입었던 근무복, 모자, 깃발, 벽난로 등 그 당시 사용하던 물품들을 전시하

고 있었다.

오래간만에 찾아본 기차역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 쓸쓸한 느낌마저 준다. 연탄가루를 새카맣게 뒤집어쓰고 있던 추억 속의 기차역이 그리운 때문일까. 무한한 꿈을 갖게 해주던 철길 끝 저편 세상도 서글픔이 젖어있는 힘든 세상임을 몰랐던 그때가 진정 행복 속이었는데. 오늘도 내 컷가엔 긴 여운을 남기는 고향의 기적소리가 산모퉁이 저편에서 들려온다.

시어머님

김명암

"니 상추 좋아하데..." 경로당을 다녀오시는 시어머님이 검은 비닐 봉지를 내밀며 나를 보고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까지 물 한 번 손수 떠 잡숫지 않던 어머니가 나를 생각해서 상추를 사 오셨다고 하시고 웃어주기까지 하시다니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성격이 유별나고 깐깐하신 어머니는 내가 결혼하고 반백 년 가까운 세월을 한 집에 살면서도 며느리인 나와 바로 보고 눈을 맞춘 적도 없고 한 번도 나를 보고 웃어준 적도 없었다. 늘 못마땅한 모습으로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혼 당시 당신도 45세 새댁이었던 어머니도 어느덧 아흔에 가깝게 되셨고, 나도 같이 늙어가고 있는 지금에야 조금이나마 마음을 여시는 건 고맙다고 해야 할지, 반갑다고 해야 할지, 안타까워 더 원망을 해야 할지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고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24살 막 들어서는 정월달에 선을 보고 신랑집 쪽에서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살아생전에 손부며느리를 꼭 보고 싶다고 하신다며 얼마나 서두르는지 정말 열결에 시집을 오게 되었다. 시어머니 될 분의 인상이 너무 차가워 보인다고 오빠는 반대를 했었는데 엄마는 말이랴도 부잣집에 가면 고생 안 한다고 그쪽에서 좋아하니 성사를 시키자고 하셨고, 철이 없던 나는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신랑 될 사

람이 괜찮아 보여서 선보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하였다.

어리석은 성격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나였는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몰아붙이고 야단만 치셨을까. 하다못해 턱도 짧다고 못마땅해 하셨고, 키는 작은데 다리만 너무 기다며 나무라기도 하셨다. 나보다 키가 조금 작은 큰 시누이를 지금까지도 나보다 크다고 하신다. 그야말로 우리 어머니는 턱이 없으시다. 아랫입술에서 턱과 목의 경계 없이 바로 밋밋하게 연결되신 분이다. 시어머니 형제분들이 많으신데 다들 턱이 그렇게 생기셨다. 그런 시어머니가 내 턱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시니 어린 내 맘에도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었다. 당신 딸들은 그렇게 공주님처럼 위하시면서, 며느리도 제 어머니에겐 귀하고 귀한 딸임을 미처 모르셨는지. 별난 집에 시집보내고 늘 노심초사 애 닳아하시던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불효에 가슴이 너무 아파 얼얼불은 마음이 쉽사리 녹지 않는다. 인내와 희생의 반복이 요구되는 그런 과정에서 삶이란 너무나 힘겨운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었지만, 일상 속에서 남편이나 아이들이 주는 작은 행복들과 감동들이 힘겨운 시집살이를 적응해 나가는 버팀목이 되어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이다.

'세상사 새옹지마'라고 하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변화한 것은 세월의 흐름 덕분인가. 미움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괴롭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되어 내게라도 기대어 볼까 하고 다가오는 것 같다. 안 하시던 행동들을 하셔서 갑자기 진한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어머니, 지금도 비위 맞추기는 힘든 분이지만, 맺혀있는 응어리가 단단하더라도 조금씩 풀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김수남

III

「폭풍이 지나가고」
「빛으로 내게 온 일상」

폭풍이 지나가고

김수남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던 내가 눈을 떴을 때의 일이다. "엄마를 알아보겠니? 이건 기적이며 신비다. 우리 스텔라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범벅이 된 시리도록 따스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오랜만에 느끼며 작은 가슴은 소용돌이쳤다.

오십의 마지막 언덕에서 접했던 시련, 우환은 포실하게 살던 내 생애 없을 것 같았기에 더 허망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연약한 체구지만, 왕성한 활동과 단단한 체력 탓에 감기도 거의 없던 내게 큰 병이 올 줄이야. 누구나 꽃길인생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난 그렇게 척추희귀병으로 난생처음 입원을 했었다

다 인실 병실의 일상은 여러 모습들이며 반복의 연속이었다. 나의 입원실 등장은 그곳의 환자들에겐 충분한 눈요깃감이 되었다. 바짝 긴장해 입원하던 첫날, 내이름은 '언니요'였다. 수술 후 안착했을 때에는 '색씨요'였고 모든 치료가 끝나고 재활병동으로 옮겨왔다. 처음부터 남편은 "우리 마누라 나이 많아요. 커다란 손주도 있고요." 하면서 짝을 짝둑 잘라버렸다. 모두들 반신반의 하면서도 "흠마야, 아직도 새파랗구만." 하며 쑥덕했다.

그들의 돌아올 리액션을 너무 잘 알기에 항상 너무도 뻔했기에 남

편은 그저 즐긴다. 나의 인생 모토에 세상사 어떠한 고난이 와도 결코 하늘에 따지지 않으리라 했건만 조울증과 나의 히스테리는 극을 달렸고, 늘 밝디 밝았던 내 모습은 온통 원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수술 들어가기 전날, '희귀병이라 몇 년 전까지도 구제불능' 운운하는 담당의사 앞에서 우리 부부는 암흑에 떨어야 했다. 딸아이에게 영영 울면서 흑여 모를 유서도 썼다. "너는 영리하여 잘 살 테니. 큰 걱정 없는데 좀 어설픈 네 동생 잘 부탁 하노라. 00브랜드 바지 안에 비자금 얼마, 00통장 들어있고 등등 이제껏 물어뒀던 재테크사실까지도 발설했다. 지금도 간혹 입원 얘기가 나오면 이 유서 얘기로 주위가 모두 울고 웃느라고 옛 얘기하듯 한다.

"급한 수술 받으신 거 같네요. 기적을 경험하셨다니 급박한 상황이셨던 듯 선생님은 아플 여유도 없을 만치 에너지이저인데 무슨 일 일까 궁금만 하늘만치 가집니다." 병상에서 올린 내 카스토리에 대한 댓글이다. 이외도 사람들이 나를 표현하는 여러 말들은 그렇게도 반듯하던 어찌 그대가 아플 수 있나 등으로 슬한 반응들과 발각 빅 뉴스감이 되었다. 불행 누구나 온다. 하지만 그날이 나에게겐 없겠지 했다. 나 역시 칠혹 같은 입원생활 내내 "내가 왜?"

감정 조절장치가 제멋대로 움직여서 온갖 풍량이 치밀어 올랐다. 폭 쉬란 신호 '휴가다' 생각하라며 하나같이 이런 위로들을 한다. 그러나 "슬픈 각시 오나가나 슬프다." 옛말처럼 내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갈수록 울화통만 터져나갔다. 게다가 문병 사양을 완벽히 외쳐놓고도 긴 병상, 인간적 외로움과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몰려왔다.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아가던 생은, 온전히 갇힌 병상에서도 바쁜

시간들이었다. 그곳서 조용히 참 나를 만나겠노라 했건만, 일들은 이어져갔고 긴 터널을 지나고 퇴원일이 가까워오자. 간구와 청원 뿐이던 영성 부족도 점차 잔잔한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갔다

거센 폭풍이 지나갔다. 정신을 가다듬어갈 즈음, 치열한 삶에 치여 더러 예를 거른 가까운 지인, 친족에 사과도 했다. 일상에 다시 돌아가면 그 겸손한 맹세를 지켜가는 일과 새 옷으로 갈아입을 많은 다짐, 온유한 맘들이 잘 지속되길 빌며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드러나려는 유혹, 절절이 끊어주시길 빌어본다. '회복 후 이 한 몸 어찌 바칠까 걱정이옵니다.'라는 너스레까지 떨며 차츰 여유도 찾아갔다. 입원 내내 매일 내 발을 씻겨주고 운동시켜주며 "당신, 잘 먹어야하는데"라며 주저리 챙겨오던 그,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 늘 당신 덕분에 산다는 그, 나를 향한 저 부동의 사랑을 익히 잘 알면서도 남편에게 나는 늘 불만해하고 새초롬하기만 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고마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

코펜하겐 주교자 성당까지 미사 넣어주신 님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내 편 되어 마냥 사랑해주신 단원들, 떠나는 친정같이 늘 애잔한 소화님 모두 감사할 따름이다. 문병촌수 최고인, 사돈이 사주신 보정기 덕분에 재활치료 역시 빨리 호전되었다. 새로 태어난 귀한 동생이라며 울며불며 애간장을 다 태운 언니들과 모든 이들의 바람으로 수술은 대성공이었다. 천둥번개가 치던 그날도 어언 2년이 흐른 지금 일상생활도 완전복귀했다. 멈추어 비로소 본 것들 이제 느낌의 삶, 그리고 어릴 적 문학소녀 꿈을 환갑에 다시 시작한다. 딱 10년 전, 범어동 최초 '장모 가시나' 로 최강 동안 별칭을 얻던 내 모습이, 그것도 바짝 아픈 후 나락으로 떨어지나 했건만, 여러 위안 퍼포먼스들로 인

해 새 에너지를 얻어간다. 이제는 남은 삶, 보배로운 토양으로 삼아 인생의 주어를 어디 둘 것인지 고민하는 날을 맞이했다. 그 무서운 폭풍전야, 내 눈물은 시냇물 되어 흘렀고 살려달라 부르짖던 그날, 하늘에서 들리던 무한한 그 응답을 난 평생 잊지 못하리라.

빛으로 내게 온 일상

김수남

바람도 고운 가을날이다. 눈을 들어보니 창문가 나뭇잎들, 우수수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예쁘다. 살랑 부는 이 계절이 더 깊어가기 전에 단풍 낙엽을 즐기 위해 나서야겠다.

도망가는 낙엽들을 나이도 잊은 채 이리저리 폴짝폴짝 따라다닌다. 지나던 차들이 힐끔힐끔 쳐다본다. 감잎은 빠당빠당 해서 좋고, 붉은 단풍잎은 배색 넣기 안성맞춤이다. 느티나무 가지는 또 얼마나 내추럴한가! 자연 부케를 만들까. ‘낙엽, 너를 보내며...’라고 시를 써볼까. 설렘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와 건반을 열었다. 시집을 때부터 나와 고락을 함께 했던 피아노, 이 무생물에도 말을 건넨다. “미안해 오랜 만이지.” 고여 있던 감성들이 마구마구 쏟아진다. 80년대 초 시집가기 전, 언니들 몰래 했던 저녁 황금시간대 2시간 연주, 뽕뽕한 알바였지. 그때 그 얼룩진 악보를 놓고 예스터데이, 노노레타 등 올드 팝을 마구 두드렸다.

아, 이 소소한 일상,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암흑 같았던 그 어느 날 병상에서 그리도 갈구했던..., 그리고 보면 일상의 소중한 것은 곳곳에 있었다. 컴퓨터 카페 문화가 한창이던 시대, 어느 글 동호회에 입회했을 때의 짜릿한 그 댓글을 더듬어본다.

글쓰기 공부라곤 한 번도 접해본 적 없고 그것도 일상의 글, 막글로

쳐들어 간 것이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른 후 스마트폰 시대가 오자, 나는 "스마트한 여성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앤지랑을 떨며 새로 열정과 신명을 불살랐다. 지난달 100호를 매기며 나는 세상과 소통해 간다. 이 여여로움을 왜 일찍 몰랐을까.

"시니어 스토리텔러. 북텔러를 해봐요. 연세대비, 가장 핫 한 흡인력과 경쟁력이 있어." 최근 들어 내 가슴을 가장 뛰게 했던 지인의 제안이다.

일생 검업했던 예술 디자이너와 학문, 두 장르를 넘나들며 무슨 가속이 날 살려줄 것만치 앞만 보고 뛰어갔다. 그렇다고 어느 곳 하나도 꽃피우지 못했다. 일에서 내려오겠다고, 아름다운 뒤를 보이겠노라 수없이 다짐했건만, 내 안에 아무것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 무서운 폭풍(병원 입원)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멈춰 섰다.

한 길로 가지 않아 늘 정체성 모호에 시달렸지만, 이제 인생 삼모작 시대가 오니 오히려 갈 맞춤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나는 요즘 노후대비와 인문학. 스토리텔러. 수필 등 두루두루 투어를 한다. 그리고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이 보배라 깨닫는다. 찬란한 연애도 시시한 일상을 이길 수 없다지 않는가. 감사로 가득한 나날들이다. 힘을 빼고 더 낮추고 설렁설렁 살자고 나날이 최면을 걸며 다시 내 삶을 디자인해 본다. 행복은 가까운 데서부터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한다. 나쁜 오후, 내가 좋아하는 오후 서너 시의 별, 단풍 먼길 떠났다. 이제야 돌아온 듯한 나의 자리 내 맘속 다시 빛으로 온기로 다가온 나의 일상들, 조금만 더 천천히 가자.

깨끗이 닦아 놓은 가랑잎에게 다시 속삭였다. "나 참 잘했지." 나도 바스락거리는 거 참 좋아해 때마침 카톡도 오네. "캠퍼스 단풍이 너무 예뻐 그대 생각 한가득..."

"아, 다음 주 제가 갈 때까지 가을이 떠나가진 않겠지요?"

김순동

III

「콩나물」

「상생」

「베란다 고추」

콩나물

김순동

창문으로 스며든 저녁노을이 서럽다. 저녁 준비를 하다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는 아내의 희끗희끗한 머리와 야윈 목 언저리의 주름이 더욱 애처롭다. 저세상으로 떠나보낸 시아버지에 대한 회한(悔恨)이 아직도 남았는가? 주방에서 흘러오는 비릿한 냄새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한 끼도 빠짐없이 밥상에 올렸던 콩나물을 떠올리게 한다.

70년대 농촌의 삶은 가난했다. 며느리는 더더욱 힘들고 고됐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 시어른이 기거하는 방을 둘러보며 건강상태를 살피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슬에 옷을 적시며 갓 따온 텃밭 채소와 콩나물, 그리고 묵은 김치로 밥상을 차렸다. 끼니마다 시아버지와 가족들의 밥상을 따로 차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한몫했으리라. 아내는 어린 나이에 시집와 내가 군 복무하는 동안에도 혼자 갓 난 어린 딸을 등에 업고 논밭의 참 준비와 농사일까지 해야 하는 고된 삶이었다.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때 수차례의 강제노역으로 고생한 탓인지 팔다리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 앓는 소리를 못내 외면하지 못해 연약한 손으로 밤마다 통증 부위를 주물러 드리곤 했었다. 아버지는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마셨고 술을 마셔야 잠시나마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아내는 술에 중독되다시피 한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책임감에 젖어 있었다.

아버지의 병증은 눈에 보였다. 원인 모를 통증에다 가슴과 팔다리는 살이 빠져 앙상했고 복부비만과 고혈압, 지방간 증세에다 변비도 심했다. 아버지가 먹고 싶어 했던 생선회나 쇠고기 육회를 마련하고 싶었으나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다. 아내는 전통시장에서 듬성듬성 슈아 봉지에 담아주는 값싼 콩나물시루에 시선이 멈추었다. 기마민족으로 육식을 했던 선조들이 단백질이 귀한 한반도에 정착하여 식물성 고기라 일컫는 콩을 찾아낸 기쁨이었을까?

아내는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퍼 올려 콩나물을 수차례나 씻어냈다. 그리고는 간을 맞추어 떡잎의 노란색이 국물에 우러나도록 끓였다.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콩나물밥을 지었다. 밥이 뜸 들 때 얹어놓은 떡잎을 따낸 씨눈줄기가 흐물흐물하게 익으면 보리쌀이 쫄깃지 않게 떼내어 양념간장으로 비볐다. 우려낸 콩나물 국물은 마시게 하고 콩나물밥은 성치 않은 치아로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우물가에는 항상 다듬다 만 콩나물 소쿠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기 일쑤였다. 간혹 노랗던 떡잎이 연녹색으로 변한 것을 보면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바깥의 일과가 눈에 선하다. 삼백 평이 넘는 채마밭 관리는 언제나 아내 몫이었다. 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텃밭을 가거나 홉의 참을 머리에 이고 한참이나 떨어진 채소밭까지 걸어가 상을 차리고 빈 그릇을 옮겨 설거지해야만 했다. 채마밭 관리며 아버지 수밭들라 농사일 거들라 남편과 넷이나 되는 아이들 뒷바라지하랴 노에 같은 삶을 살았다.

아버지의 건강은 아내의 지극한 정성으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밤마다 팔다리 통증으로 앓던 신음이 줄었다. 장기간의 음주로 눈동자와 그 주변이 노랗게 변한 황달이 사라졌다. 변비도 현저하게 개선되었고 체중도 불어 가끔 밭에 나가 농사일도 하게 되었다. 오늘내일했

던 아버지의 수명은 7년이나 더 연명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부터는 음식이라곤 전혀 드시지 못했다. 소주 뒷병을 머리맡에 두고 밥 대신 마셨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 아내는 콩나물에 잘게 썬 황태를 넣어 약한 불로 오랫동안 우려내어 걸렸다. 여름에는 노랗게 우린 물을 우물에 담가 시원하게 해 올렸고, 겨울이면 따끈하게 데워 드렸다. 이렇게 콩나물에 부족한 아미노산의 보완효과로 기력을 높였다.

채소 농사가 풍년이 들 무렵에는 콩나물 우린 물로 고기 미음도 만들었다. 잘게 썬 쇠고기에 콩나물 우린 물을 부어 서서히 우려 걸러내고 불린 쌀이나 미리 해둔 밥을 넣고 보통 불에서 끓여내어 한 손 갈씩 식혀 떠먹여드렸다. 불편한 재래식 부엌에서 몸에 부치는 무거운 무쇠 솥 뚜껑을 여닫으며 밥을 지어야 했고 쉽게 타버리고 꺼지는 짙블로 음식을 만들어야만 했다. 먹는 것보다 일이 과도해 그녀의 몸은 점점 콩나물처럼 야위어졌다.

아내 정성도 콩나물을 닮았다. 잠자던 콩에 습기가 스미면 생명의 싹이 움튼다. 산성인 콩 배젖을 삭혀 알칼리성의 콩나물이 되면서 애초에 적거나 없었던 식이섬유나 비타민류와 같은 신비의 물질을 가득 채워 넣듯 문화의 괴리를 극복하면서 쏟은 정성으로 병든 아버지의 몸과 마음에 삶의 의욕을 불어넣었다.

아내는 오늘도 콩 비린내를 풍기면서 자신과 닮은 콩나물을 요리한다. 콩나물밥에 콩나물국과 콩나물무침으로 한 상을 차린다. 온통 콩나물 천지다. 아버지의 건강을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마음을 그때는 몰랐다. 삼시 세끼 콩나물이나고 푸념이나 했던 내가 아버지의 나이가 된 지금에서야 그녀의 정성을 깨닫는다.

상생

김순동

‘혼자’라는 말이 흔해졌다. 혼자 자고 먹고 마신다는 혼숙, 혼밥, 혼술 같은 신조어도 생겼다. 혼인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졌다. 여기에 덧붙여 급속한 노령화로 홀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 때문인지 인구도 노동 인력도 줄고 있다. 초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수박 겉핥듯 산다.

속심을 드러내면 서로 다른 이념이 마음을 뒤흔다. 돈과 권력, 명예만을 쫓아 목을 맨다. 동과 서, 남과 북이 갈라져 비방한다. 곳곳에서 ‘내로남불’, ‘미투’하며 뒤틀리는 소리를 낸다. 수만 군중이 한쪽은 촛불을 다른 쪽은 태극기를 들고 싸운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다. 딸은 태극기를, 아들은 촛불을 들고 서로 자신이 옳다 한다. 팍 찬 물 컵에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 넘친 물이 종이를 젖게 했다며 물그릇의 작음은 탓하지 않고 한 방울의 물을 벌한다.

칠십을 훌쩍 넘기고 나니 부부간도 예전 같지 않다. 아내의 불면증 때문에 늦은 밤 TV 소리로 잠을 설친다. 수십 년을 같이 살다 보니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각방을 쓰면서부터 생활은 편해졌으나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실감난다. 아름다움은 적당한 거리에서만 있는 것,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된다는 어느 시인의 글귀가 떠오른다.

우리 사회는 공생체가 되어야 한다. 콩과식물의 뿌리혹박테리아처럼 상리공생(相利共生)을 해야 한다. 기업은 카르텔을 구성하여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고, 노동자는 폐전을 형성하여 정치를 하려하며, 정치인은 나라 걱정은 잊은 듯 과별정치를 일삼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담그기 전의 김치 재료 같다. 고추는 햇바닥을 찌르는 뜨거운 매운맛으로, 마늘은 코끝을 자극하는 날카로운 매운맛과 흥한 냄새로 생강은 아린 쓴맛으로 젓갈은 비린 짠맛으로 상생을 위협한다.

김치는 재료에 따라 종류가 수없이 많다. 주재료가 배추면 배추김치요, 무면 무김치, 파면 파김치다. 이들 주재료에 소금, 무, 고추, 마늘 생강, 젓갈은 빠지지 않고 사용한다. 젓산균의 식성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당분과 아미노산, 비타민 B1은 필수영양소며, 소금은 잡균의 번식을 억제한다. 마늘의 비타민 B1과 무의 당분, 젓갈의 아미노산이 여러 종류의 김치 젓산균 중에서 몸에 이로운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의 하나인 락토바실러스 프란타룸(L. plantarum)을 생육시킨다.

대장에서 서식하는 젓산균은 사람이 먹은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반면 장내 대장균군의 생육을 억제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 그러나 항생제를 먹는다면 과로나 불량음식 탓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 등 신체적 환경에 따라 그 수가 줄기도 한다. 해외여행에서 가끔 변통이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평소보다 피로가 누적되어 그 수가 감소한 때문이다. 요구르트도 장내 젓산균 수를 높이는 서구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지만 우리는 김치로 건강을 지켜왔다.

우리 민족은 천년을 멀다 않고 김치를 먹었다. 김치는 갖가지 채소의 공생체요, 젓산균과 채소의 공생체다. 배추나 무는 요철부나 껍질에 젓산균을 숨겨 보호해주는 대신 젓산균은 채소들을 숙성시켜 저

장성을 높여두었다가 언젠가 사람의 장에 들어가 정장작용을 하면서 사람같이 사람처럼 살고 싶은 뜻을 품고 있음이 아니겠는가.

김치 재료들은 이념이 서로 다른 투사와 같다. 소금은 마늘이 품어 내는 냄새는 마치 상생을 해치는 기회주의자와 같고, 젓갈이 내뿜는 비린내는 평화를 깨트리는 불량자와 같고, 생강의 아린 쓴맛과 고추의 매운맛은 독불장군과 같으며 소금은 조폭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들 재료에 소금을 치면 재료에 부착한 잡균의 생육이 저해되면서 젖산균이 떨어져 나와 발효가 시작된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김치 재료와 같은 말썽꾼들을 한 데 섞어 젖산발효를 일으키는 스타터를 넣는 이가 왜 없는가. 소금이 들어가서 각 재료들을 숙죽이면서 떨어져 나온 젖산균이 기회주의자와 불량자 그리고 독불장군들을 발효, 숙성시켜 매운맛은 식욕을 돋우는 둥근 맛으로, 짠맛과 비린 맛은 조화된 맛난 맛으로 그리고 젖산균이 생육하면서 쏟아낸 새콤한 맛은 강한 살균력을 지녀 조화된 맛과 저장성이 가미된 김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납작 엷드려 결눈질하며 갖가지 감언이설을 퍼트려 갈등을 부채질하는 가자미 같은 놈들도 좋다. 내장과 지느러미를 쳐낸 후 조밥에 엿기름과 소금, 그리고 소금에 절인 무채와 고춧가루, 마늘, 생강을 혼합한 갖은양념에 버무려 뒤라. 그러면 젖산균에 의하여 발효가 일어나 가자미식해가 될 테니.

한 두 마리의 개가 수많은 소 떼를 몰고 다니듯 세상은 언제나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강자가 약자를 침탈한다. 침탈을 당해본 약자는 고래에 쫓기는 새우 떼처럼 늘 시대조류에 따라 마음이 흔들린다. 혼자 가 좋아지기도 하고, 감언이설에 사로잡혀 쫓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흔들기도 한다.

여기, 상생의 길이 있다. 바로 공생이다. 배추처럼 젖산균을 숨겨 줄 주름 하나라도 갖춘다면 결국 채소들은 겨울을 넘길 수 있는 저장성을 확보하는 한편 젖산균은 김치 속에 살아남아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 테니. 그러기에 우리는 약자지만 결코 약자가 아니다.

베란다 고추

김순동

베란다에 고추가 열렸다. 이른 봄 화분에 심겨진 선인장을 뽑아낸 자리에 고추를 심었다. 뿌리를 내린 고추는 작은 흰 꽃이 매일 새롭게 피었다. 한 개의 암술에 다섯 개의 수술이 에워싸 쉽게 꽃가루받이를 한 듯 흰 꽃 모두가 열매를 맺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이 반복되더니 처음 맺은 열매는 어느새 먹음직한 풋고추가 되었다. 고추는 열매를 맺은 후 보름이 지나면서 매운맛을 띠기 시작하여 한 달 가량이 지나면 제법 맵싸한 풋고추가 된다.

여름철이 되면 찬물에 보리밥을 말아 날된장에 매운 풋고추를 찍어 먹곤 했다. 옛날의 추억이 떠올라 나는 베란단의 고추를 수확하고 아내는 보리밥을 준비했다. 베란다에서 따낸 풋고추는 크기와 촉감이 완숙한 풋고추였으나 전혀 맵지 않았다. 오히려 쓴맛이 났다.

고추는 원뿔형의 장과로 태좌(placenta)에 많은 종자가 붙은 채 두꺼운 껍질에 싸여있다. 고추의 태좌는 여인의 태반이 태아가 필요로 하는 공기, 항체, 영양분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각종 대사물질을 배설하듯 씨가 필요한 영양을 보급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잎사귀에서 만든 당분과 아미노산을 이용해 매운맛을 만든다.

매운맛은 몇 가지 물질이 혼합되어 있다. 그중 대표적인 물질인 캡사이신은 자기방어 물질이다. 메마른 땅에서 강렬한 햇볕이 쬐이면 더욱 많이 만들어 낸다. 끈충이라도 침입하게 되면 매운맛 성분을 씨

로 날려 보내 방어한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 말이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기방어를 위해 매운맛을 더욱 많이 만든 탓이다.

베란다는 두꺼운 유리가 따가운 자외선과 차가운 외기를 막아준다. 아침저녁 살피는 손길은 갈증과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고도 남는다. 고추는 마치 아파트의 주인이라도 된 듯 당당하다. 이런 환경에서 자기방어의 필요성을 느끼겠는가? 까맣게 익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고추의 매운맛은 노화를 예방하며 미용효과도 있다. 생활 습관 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효과도 크다. 지금은 청양고추처럼 유전적으로 매운맛이 많아지도록 한 고추를 재배하고 있다. 항시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매운 고추를 먹어왔다. 매운 고추는 한때 적을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각종 질병을 물리치는 건강 식품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베란다에서 키운 고추는 스스로의 방어기능을 잃어버렸다.

강대국들과 남북한의 갈등에서 고조되는 위협을 잇은 채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에 길들여지고 있다. 안보에 대한 불감증에 젖어 스스로의 방어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베란다의 고추를 돌아보게 된다.

문선자

III

「땀을 들이다」

「순간적 기록」

땀을 들이다

문선자

아침부터 비가 내려 커피향이 진하게 코끝으로 말려든다. 에스프레소의 향을 만들어내는 크레마는 부드러운 곡선미가 살아있다. 풍부한 농도와 향의 조화로 이뤄진 아메리카노는 아니지만, 나는 핸드드립으로 만든 따뜻한 커피 한잔을 들고 꽃향기 풍기는 창가에 앉는다. 우리 집 커피 소품들은 화려하거나 유행을 쫓아가며 갖추진 않았지만, 빈티지한 분위기로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 곱게 간 원두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부풀어 올라오는 커피번의 풍성함과 땀을 들인 아침 커피가 바디감을 느끼게 한다.

커피 향 가득한 잔속에 그리움이 된 얼굴이 찾아들어 며 언 오늘 속의 시절이 열린다. 함박눈이 쏟아지는 추운 겨울날 야외 테라스에 마주앉아 커피를 마시며 찍었던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술하게 흘러버린 세월이 거짓말처럼, 그리움은 내 눈과 가슴으로 타고 들며 아름다운 소녀가 되어 있었다. 바람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소녀, 치마 자락 레이스에 달린 분홍 꽃이 아련해지는 세월 앞에 내 눈을 열고 들어선다.

생각과 기쁨이 가득한 기억, 낭만과 추억들이 나폴 거리며 눈앞으로 스쳐 지나간다. 입가에 행복한 미소와 즐거움을 줬던 소녀를 잠시

생각하며 가슴 설레 본다. 유난히 커피를 좋아했던 소녀와 나는 커피로 만난 인연이었다. 커피 마실 자리가 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를 챙겼다. 뭔가를 깊숙이 생각하고 지연시키는 소심한 나를 보고, 너무 오래 뜬을 들이면 모든 걸 놓쳐버린다고 소녀는 꾸짖었다. 누구든 미팅할 때나 맞선을 보고도 서로가 서로를 견주어 본다. 이것 저 것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을 뜬 들인다고 한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에 뜬을 들여야만 맛이 난다. 마음 한 편에 언제 흩어져 버릴지 모를 인연이란 생각에 나는 항상 조바심을 낸 것 같다. 늘 평온이 깃들길 바라는 사람으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려는 사람으로, 서로에게 닿아 있기를 바랄 뿐이다.

평소 커피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맛과 향을 알기 위해 커피학원에 발을 내디디었다. 콩을 갈고 내리는 긴 과정이 필요한 핸드드립 커피가 더 정성스럽게 느껴졌다. 섬세하게 물 온도와 커피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내린다. 부풀어 오르는 거품과 커피향이 코를 자극한다. 드립 퍼에 내린 커피를 잔에 따른다. 커피위에 연하게 피어오르는 건 커피 기름이다. 수용성이라 처음 따랐을 때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밀로 갈아 앉는다. 품종별로 향이나 커피 맛이 각각 다르다. 원두를 분쇄해서 드립 퍼에 담으면 전기 포트가 제 몫을 다해 힘을 실어준다. 스멀 스멀 올라오는 달달한 향을 맡는다. 첫 물줄기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향해 원을 그리며 물을 머금었다가 뺄으면서 내뿜는다. 처음에는 푹 푹 떨어지다 시간이 지나면 이내 떨어진다. 이것이 커피의 뜬을 들이는 과정이다. 드립커피의 즐거움은 아마도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다. 미래에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핸드드립이다.

브라질, 콜롬비아, 케냐 등 커피로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입에 머금은 순간 상큼하며 기분 좋은 쓴맛, 신맛, 단맛, 짠맛이 느껴져 조화가 훌륭하다. 카푸치노는 스팀피처에 따뜻한 우유를 데워 에스프레소에 거품이 생성된 우유를 부우며 여러 가지 모양을 낸다. 마실 때 입술 주변에 몽글몽글 거품이 가득 묻는다. 아포카포는 잔에 꼭 차도록 아이스크림을 담아 커피를 부어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미끄러져 들어간다. 음용하기 좋은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농도의 접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커피 머신에 자동으로 30초간 뜸을 들이는 공정을 구현함으로써 한 잔의 커피가 진정한 맛을 담아 낸다. 작지만 큰 차이, 그것이 바로 맛과 향을 결정한다.

수업을 잘 따라 노력한 결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제는 맛과 향을 알고 제대로 된 커피를 내릴 수 있다. 눈, 귀, 코, 입, 온몸으로 마실 수 있으니 행복하다. 뜸을 잘 들여 윤기 있고 찰 지게 맛있는 밥이 되는 것처럼, 뜨거운 물로 추출할 때 빵처럼 부풀어 오른 커피도 뜸을 들이는 과정이다. 내 삶도 신맛, 단맛, 쓴맛, 짠맛, 감칠맛을 낼 수 있도록 적당히 뜸을 들이며 나아간다.

순간적 기록

문선자

언제 어디서나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들이 가방 안에서 소리를 낸다.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나는 그 부분을 발췌하여 노트에 옮겨 적는다. 신문을 보면서도 좋은 정보에 밑줄을 긋고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을 받아 메모한다. 순간적 기록은 살아가는 목적이자 방법이다. 생을 마무리 하는 동시에 불멸을 꿈꾸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다.

어릴 적부터 일기는 매일 써야 한다고 뇌리에 주입 돼 있었다. 나에게 는 다행히 일기 쓰기의 상성이 잘 맞았던 것 같았다. 또한 편지도 자주 썼다. 말주변이 없는 탓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꾸민 편지와 일기를 적는 일이 즐거웠다.

학창시절 때였다.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낭만을 꿈꾸던 시절 종종 엽서를 보냈다. 그때 음악방송은 별다른 유흥거리가 없던 시절의 꿈, 낭만, 판타지였고 일탈을 넘어선 일상이었다. DJ목소리와 누군가의 사연 신청곡을 듣고 있으면 마치 답장이라도 받은 듯 기뻐다. 음악과 사연을 목말라했던 청춘들을 불러 모은 시간이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듣기 좋은 음악과 사연을 보내 나의 마음을 충전 시키곤 했다.

지금도 DJ들의 부드러운 목소리. 해박한 음악지식, 그리고 시그널

뮤직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 일찍이 음악세계에 입문한 나로서도 그저 아스라한 기억정도.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와 음악이 내게 전달되던 감수성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그 시절 옛이야기처럼..., 요즘도 하루를 마무리 하고 음악을 들으며 글을 쓰면 상처나 고통이 지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제는 큰 가방을 메고 골목사이에 폐달을 밟는 우편집배원들의 모습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나는 문구점에서 편지지와 우표를 산다. 사연을 담긴 편지를 텅 비어있는 우체통에 넣는다. 들어가는 순간 어떤 자리에 툭 하고 안착하는 소리가 날 때 따뜻한 감정이 가득 차오른다. 오래된 편지를 열어보면 주고받았던 마음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편지는 단순히 소통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물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일기장을 펼치면 아직도 성장 통을 겪는 나를 발견한다. 일기는 나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며 성장의 기록이자 추억이다. 요즘은 기억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선별해서 쓴다.

지금도 내 글을 통해 과거의 나를 떠 올리는 습관은 여전하다. 기록 욕구도 강한 편이라 다이어리 먼 슬리에 한 줄 더 적고 틈만 나면 글 쓸 만한 소재를 생각한다. 가끔 이유 없이 아픈 날도 있다. 스스로와 충분한 대화 없이 답만 구하려고 하니 아픈 이유를 찾기 어렵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 듯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를 써보기도 한다. 제일 가까운 나를 이해하지 못해 자꾸 아팠던 것 같다. 나의 기록은 말로 할 것을 일부러 글로 남기기도 한다.

글을 쓰는 행동은 뇌의 퇴행속도를 늦춰주고 흥분 된 감정을 차분하게 이완 시켜준다. 어제의 낡음을 버리고 나를 성장 시키며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한다. 부담감, 압박감 등 힘든 감정을 모두 떨치고 새로운 것을 채워본다. 행복한 기록을 통해서 할 일을 일상에 정렬해두고 조금씩 실천하며 사는 건 무척 설레는 일이다.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곳의 역사와 배경을 찾아 스토리를 찾아본다. 내가 봤던 곳이나 찍어온 사진들이 더 의미와 가치가 있고 애정이 있다. 그 후부터 사진과 이야기로 함께 남긴다. 사진은 순간을 미분하고 글을 적분한다.

기록을 통하면 과거의 기억들이 소중하게 음미할 수 있다. 메모해두는 습관과 일기 쓰는 일이 나에게 하루 일과 중에 하나였건만, 요즘은 컴퓨터와 휴대폰에 어떤 기록도 가능하다. 굳이 손으로 직접 글을 쓰고 기록이 남길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꺼이 저장 하는 것은 아날로그 감성이다. 종이 위에 써내려가는 것과는 많은 느낌의 차이가 있다. 그때의 느낌들을 글로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 보기도 한다.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회미해지는 기억들도 나만을 위한 기록물로 남기자는 결단이 선다. 내 삶의 일상을 담은 기록물을 돌아보고, 내용을 메모하며 살피는 행위가 나를 만드는 순간적 기록이다. 이것이 어떤 이익을 바라는 생산적인 것도, 소비적인 것도 아니다. 내 환경 내 관계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깨달음 즉 내 삶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역사다. 기록이 하루하루가 만들어 낸 비단이라 할까.

박순금

III

「오르지 못한 대청봉」
「작은 행복」

오르지 못한 대청봉

박순금

여고 친구인 여섯 명이 2박3일간 설악산 대청봉을 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들의 나이 올해 예순 살, 모두들 다리에 힘 빠지기 전에 빨리 갔다 오자며 좋아했다. 나는 해마다 갔었기 때문에 설악산은 가을도 좋지만 시원한 여름이 더 좋을 것 같았다. 7월 하순에 달성공원에서 무료급식을 하시는 공덕화 보살님의 관광버스로 가기로 했다.

관광버스로 설악에 도착하여 백담사까지는 순환버스로 갔다. 여기서부터는 개인별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 백담사에서 1시간 30분쯤 가면 영시암이고, 거기서 4시간쯤 가면 봉정암, 또 1시간 30분 정도 가면 대청봉이다.

백담사에서 징검다리를 건너 산길로 들어서니 공기부터가 달랐다. 좋은 곳에 친구들과 함께하니 아주 신이 났다. 모두들 나누어 먹겠다고 맛있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왔다. 봉정암에서 시작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데 나무들은 왜 그리도 나폴나폴 아름다워 보일까. 나무뿐이 아니다. 바위, 물, 풀, 꽃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산 끝자락에서는 완만한 오솔길과 가파른 계단이 반복되었다. 배낭은 무겁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산천을 감상하며 왁자지껄하다 보니 영시암에서 심은 더덕향이 나를 반기는 것 같았다.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영시암에 도착했다.

도운 스님께 삼배를 드린 후 점심을 먹고 무거운 짐은 영시암에 두

고 최소한의 집만 챙겨 설악산의 나무, 바위, 폭포 등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즐기며 봉정암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이기 시작하였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한 시간을 더 가야 한다. 내일이 걱정되었다.

공덕화 보살님이 영시암, 봉정암에 자주 가시는 분이래 미리 예약을 해놓아서 작은 방이지만, 우리 여섯이 같은 방에 자게 되었다. 저녁을 먹을 때 비가 조금씩 내리더니 점점 빗줄기가 굵어졌다. 내일 일정이 걱정되어 내 마음에도 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내일 대청봉을 가고 싶어 비가 그치기를 빌었지만 아쉽게도 천둥, 번개까지 치고 점점 굵은 빗줄기가 내렸다. 밤새도록 소란스럽게 내리던 비가 아침에 일어나니 비는 간 곳 없고 날이 아주 맑고 좋았다. 대청봉을 오를 준비를 하는데 방송으로 대청봉 가는 길은 통제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내려가기가 아쉬워 대청봉 반대쪽의 사리탑으로 올라갔다. 오세암으로 가는 길목을 내려다보니 산허리에 안개가 짙게 깔려 있고 그 위로 무지개가 떠 있었다.

"야! 구름 위에 있는 우리는 선녀다."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자연만큼은 우리나라가 최고다."

봉정암에서 발목을 잡힌 우리는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나온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영시암으로 내려와야만 했다. 능청스럽게도 햇빛은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밤새 내린 비 때문에 길이 파이고 흙탕물이 흘러 내려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쥐서 조심조심 내려왔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봉정암에서 본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작은 행복

박순금

내 곁에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의 공간이 있다. 나는 매일 그곳에 나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행복을 느낀다.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 일층이라 혹여 위층에서 쓰레기라도 버릴까 하는 걱정에 시간만 나면 집 앞 화단에서 풀을 뽑고, 물을 주며 꽃과 나물을 키운다.

"부추야, 너는 키만 컸구나. 내년 봄엔 퇴비를 많이 넣어 줄 테니 튼튼하게 자라라."

"상추야, 고추 그늘 때문에 연약하구나. 내년엔 너희를 햇살 좋은 곳에 심어 줄게."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고 보살피는 친구들 상추, 썩갯, 쪽파, 부추, 당노초, 삼동추, 호박, 고추, 가지 등 양은 적지만 종류가 아주 많다.

화단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는 불두화는 해마다 탐스런 꽃을 피워 주변을 환하게 한다. 가까이 있던 해서초등학교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 전 2010년도에 꽃밭을 관리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여 휘묻이를 해서 가져왔다. 꽃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이제 주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화단 공간이 적어 아담하게 키우고 싶어 가지치기를 많이 했는데도 가지넝쿨 둘레가 두 아름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나

를 기쁘게 하는 친구인 꽃무릇이라고도 하는 상사화가 있다. 꽃이 먼저 피고지면 잎이 나온다. 무리를 지어 꽃이 필 때면 장관이다. 옆 동네 사는 아주머니가 한 포기만 달라는데 삽으로 반을 푹 떠서 주었더니 엄청 좋아했다. 불두화는 몇 사람에게 줬는지도 모를 정도다.

내가 가진 것들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은 덤이다. 지금도 치자나무와 불두화는 휘묻이가 되어 있다.

지금 꽃밭 주인공은 국화다. 갖은 색의 국화가 향기를 풍기며 방긋 방긋 웃고 있다. 우리 집안에도 화병에 꽂아두었다. 방안을 가득 채우는 향기가 무척이나 좋다.

봄, 여름, 가을 화단에서 자라는 나물과 꽃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서인수

III

「사랑의 힘」

「떡보의 삶」

사랑의 힘

서인수

듣지 못하면 말할 수도 없다. 오랜 세월 동안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서야 찾아낸 것은 한마디로는 말할 수는 없는 사랑의 메시지였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달리는 자동차, 굴러다니는 나뭇잎, 피부에 닿는 바람, 석양에 멀리 보이는 산,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밤하늘에 별빛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정상인과 달라서인지 이들에게 사랑의 텔레파시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사람들은 인정, 우정, 감정, 애정, 열정 중에서 어느 쪽에 집중하든지 강도가 남다르게 말로, 행동으로 전달한다. 나는 이러한 정情들을 마음 한곳에 모두 모으고 합쳐 융합에너지로 극대화시키고자 정신을 집중했다. 얼굴의 표정에, 몸동작에, 눈동자에, 손바닥과 손가락에, 팔다리에 그리고 온몸에 사랑을 이루는 알갱이 입자를 쏟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알아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응이 없기 때문이었다. 마치 방송국에 각종 프로그램을 전파를 통해 가정으로 보내듯 일방적으로 보냈다.

평소에 서로 보고 같이 지낸 사람은 내가 보내는 정다운 사랑을 비교적 쉽게 알아차렸으나 처음 보는 사람들은 바보짓으로 취급하기 일쑤였다. 오랜 시간 동안의 사유와 사랑을 물엿 고아 엿을 만들 듯

농축시키는 일은 역경과 고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심오한 철학과 예술 같은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 어렵고, 볼 수 없기에 나의 대인관계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늘 오감이나 오정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만 좋아하는 듯싶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남들이 느낄 수 있는 표정관리를 잘해보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무료로 하는 시 낭송 반이나 5분 스피치 훈련을 거듭하였다. 의사소통이 어려우니 집에 오면 거울을 보면서 웃는 표정도 지어보고 발음하는 연습도 자주 흉내 내었다. 그런 덕분인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고통의 응어리와 찌든 성격에 많은 변화가 왔다. 열심히 훈련하니 무엇인가 깨달음이라 생각되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표현은 어려우나 그것은 사랑의 힘이 아닌가 싶다. 사람의 성격과 성질은 훈련하는 데 따라서 그 마음가짐이 성숙하였다.

초등학교 삼학년 때 주운 폭발물 사고로 귀머거리가 되었지만 잊고 있었던 행복했던 시절이 영화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개울가에서 풀피리를 불며 뛰놀았던 일, 당산에 연을 날리며 즐겼던 일, 기타를 치며 음악에 몰두했던 일, 친구와 함께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했던 일, 한동안 바둑에 빠져 로터리 클럽 국제 친선대회에 나가 입상했던 일들이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마음에 다가왔다.

주변에서는 귀머거리가 정규대학을 졸업한 것을 두고 기적적인 일이라 했다. 학점을 따고 시험을 치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교수의 강의를 듣지 못하고 책만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친구 세 사람 노트를 빌려보기도 했으나 요약된 문장이 많아 대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 남보다 수십 배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를 받아주는 직장은 없었다. 많이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

했으나 귀머거리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남보다 백배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지만, 사회의 높은 편견의 벽은 넘을 수가 없었다.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다. 이 역시 영업이 어려워서 휴업을 하기도 했다.

대학 다닐 때처럼 다시 공부하여 건설기술자 을류 자격증을 취득했다. 때마침 이 자격증 필요로 하는 건설회사에 취업하여 일 년 남짓 일을 하였으나 악덕 업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봉급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여 속이는 일이 반복되었다. 인격을 무시당하니 정신적인 고통이 병이 되어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사랑을 쏟은 이 세상이 허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취업과 휴업을 반복했다.

어느 초겨울이었다. 울적한 마음에 가죽 잠바를 입은 채 작은 운동방에서 잠이 들었다. 어머니께서 춥다고 아궁이에 피워 놓은 연탄가스가 창호지 문틈으로 침투해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고 말았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으니 병원으로 실려 갔다.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한 채 병실에 누운 나를 살려 주시고 돌봐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퇴원하여도 뇌세포가 손상을 입어 금방 읽은 문장도 기억에 없었다. 기원에서 수담을 장기간 즐기니 세포가 차차로 재생되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큰집 6촌 동생이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결혼하라고 독촉했다. 중매인에게 나의 모든 약점을 말한 뒤 선을 보고 결혼을 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시집오는 여인이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살아야 한다고 누차 말을 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 어머니는 누나에게 받은 용돈을 아내의 서랍에 몰래 넣

어주었다. 아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를 속이고 결혼했으나 어머니 말씀대로 속이면 속으면서 되는대로 살아가라 했다. 내가 말 못 듣는 바보라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공존하는 진리 때문이었다. 속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씩이 움트고 있었으나 그래도 극복을 하였다.

건축설계 사무실을 구청 옆으로 옮긴 다음 해부터 운영이 순조로웠다.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 정성껏 설계하게 되었다. 친구가 소개한 기사도 착실히 일을 도와주었다. 삼년 이상 일한 그들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니 무척 기뻐다. 나쁜 사람에 피해를 본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씩 회상되었다. 비록 듣지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잘 살도록 노력하면 세상의 삶은 즐겁고 행복했다. 새벽에 아들 둘과 함께 조깅한 후에 식탁에 둘러 앉아 아침밥 먹으며 대화하는 것이 요즘의 즐거움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보석이 되기도 한다.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로 정해진 것이 없다. 나쁜 사람에게 속임수 당하고 재산을 빼앗길 때는 통분하고 껄뻐했으나 나의 실수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듣지 못하는 약점 때문에 속고 또 속으면서도 마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세상 살아가는 뜻이 남달라 밥을 먹기 때문이다. 귀머거리라도 사랑의 힘이 살아있는 덕분이다. 가정경제가 어려울 때 공개경쟁 입찰하는 방법을 동료 건축사에게 배워 설계 입찰 신청을 하였다. 소규모라도 처음으로 신청했는데 내가 선택한 번호가 당첨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아 통과하였다.

먹보의 삶

서인수

친구들은 청각장애가 있는 나를 먹보라고 놀렸다. 듣지 못하니까. 나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독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 인터넷에 글쓰기로 행복해지는 수필사랑 문학 동인회가 있어 가입을 하고 수강을 했다. 사랑과 다정다감한 정이 있는 글쓰기 문학 프로그램이라 좋았다. 닫혀 있던 말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청각장애가 중증이 있는 나는 교육이나 취미 모임에 친구나 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입장이라 슬픔과 외로움이 쌓였다. 모임에 참석해도 원만한 대화가 없으니 친선을 자유롭게 나누지 못하는 슬픔에 고독이 자꾸만 늘어 갔다. 부처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 석상이 되기 십상이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자주 동행하니 우정이 조금씩 쌓였다. 가슴에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내니 다이들핀이 형성되어 스트레스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가슴속에 박혀 숨어 있는 울적한 감정을 토로할 수 있으니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았다.

수필사랑 회원 모임 행사가 있어 동참하니 친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함께 등산하는 시간이 되면 흥금을 터놓기가 좋았다. 카페에도 자주 방문하여 선배님들 글을 읽고 댓글 달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 중의 하나였다. 함께 공부하고 등산한 선배님들의 사진도 나와 있어 반

가웠다. 성함과 전화번호를 몰라 궁금하면 회원 명단을 검색해 알아볼 수 있고 문자로 소통이 되니 함께 할 수 있어 많이 가까워졌다.

등산모임도 풍류가 각양각색이라 수필사랑에서 하는 짧은 산행 길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등반하고 느낌을 수시로 표현해야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인상 깊은 모습이나 장면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담아두기도 했다. 수필문학 강좌 수강시간에는 필기로 도와주는 도움이가 있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었다.

속기사협회 예비속기사 도움으로 통역이 좋아질 때 수필 쓰기 작법 강의도 배울 수 있고 문우들과 우정을 쌓아갈 수도 있다. 속기사 문자 타이핑으로 강의 내용을 자막으로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어 분위기 파악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인내와 인고, 고통과 고민이 수반되는 삶인 것이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사회에서 인연을 잘못 만나면 피해를 당하기 마련이다.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등단하는 기쁨도 있게 되니 축하해줄 필요성이 있다. 인생은 재미있게 상상하고 살아가면 슬픔도 물리치니 승리하는 기쁨도 있게 된다. 때로는 수필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공모전에 입상해 등단하니 부럽고 멋져 보여서 열심히 수필을 쓰게 되었다.

문우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자기의 문제점을 수시로 보충 보강해갈 수 있었다. 외로움이 쌓여가도 인내하는 삶으로 동참하고 동행하니 재미있는 인생이 되었다. 인생이 행복하면 유쾌하게 웃을 수 있어 수필을 쓰는 일도 즐거워진다. 재미있게 쓰다 보면 환희를 느끼고 용기도 찾게 된다.

이길영

III

「미로 (迷路)」

미로 (迷路)

이길영

한숨을 돌리고자 발길을 체육공원으로 옮겼다. 인적이 적은 길을 찾아 내가 갈 길이라고 부지런히 걷는다. 숲길이 마음을 순하게 바꾸어준다. 산책로를 몇 바퀴 돌고 나니 다리도 빠근하고 적당히 숨도 차오른다. 하늘을 올려보다가 땅도 내려다본다.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급한 일만 해두고 나온 길이다. 산 아래 짐들을 내려다보며 찬찬히 살핀다. 우리 집도 보이고 그녀의 집도 보인다.

공원 끝자락에서 능소화를 머리에 꽂은 그녀와 마주쳤다. 꽃을 보는 내 가슴이 서늘해진다. 안타까운 이 여인을 어찌하면 좋을까 싶다. 그녀를 보고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을 도통 알 수가 없다.

착하디착했던 그녀였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종합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직장생활을 하며 남매도 잘 키웠다. 어느 날 그녀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다.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녀를 집에 내려놓고는 나가버렸다. 낮에는 병원에서 퇴근 후에는 어머니의 병시중과 집안일로 가득 찬 생활이 오 년이었다. 빈틈없는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직장의 점심시간에는 헬스로 몸을 다졌다. 외모관리도 잘하는 그녀였다. 이제 시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두 자녀도 결혼을 했다. 그녀도 두 해만 있으면 정년퇴직이었다. 그런 그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가끔 정신을 놓는 날이 잦아졌다. 아직 예순도 되

지 않았는데 말이다. 병가를 내고 치료를 시작했다. 경과가 좋아지지 않아 결국은 퇴직했다. 남편이 돌보아주기를 사 년 차다.

그녀는 이제 친구도 없다. 동기간도 남편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 있고 시댁식구들은 더욱 쳐다보지 않는다. 문갑 위에 낳아주시고 키워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패를 올린 자녀도 발길을 끊은 지 오래다. 언어도 잃어버렸다. ‘어어’ 소리밖에 하질 못한다. 혼자 밖으로 나가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 마음을 달래려고 산책을 나선 나의 앞에 그녀의 출현으로 머릿속이 헝클어지고 있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아픔이다. 나도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어제는 자정이 지난 시간에 거실로 나온 어머니가 노래하다가, 또 내게 억지 말씀을 퍼붓다가, 혼자서 뉘뉘리를 두 시간가량 쏟아내다 방으로 들어가 주무셨다. 그 참에 꿈길 속의 나는 잠이 깨고, 머릿속은 열이 오르고 불이 난듯 연기가 자욱해졌다. 다시 잠들기는 쉽지 않고 머릿속 연기는 더욱 엉기어 빠져나가지 않았다. 멍멍한 몸을 일으켜 아침상을 차려드리니 어머니는 어젯밤의 그 상황을 재연했다. 머릿속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가슴은 커다란 돌을 얹어 놓은 듯 겨우 팔딱거리는 것 같았다.

힘든 상황이 닥쳐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 아이들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나 매일 집에 오지는 못한다. 바깥이 그리운 어머니는 아들네, 딸네를 다니시기 좋아 하셨는데 전혀 갈 수가 없다. 보따리를 싸고는 아들들 이름을 부르며 날 좀 데리고 가라고 부르짖는다. 듣는 이는 나밖에 없는 데 말이다.

이제 거동뿐만 아니라 정신도 왔다 갔다 하나보다. 판단력이라곤 도통 없다. 지난 해 팔순잔치를 했었던만 당신 나이가 일흔 조금 넘었단다. 명절에 식구들이 하나 둘 모이니 “오늘 왜 왔노” 하신다. 이

제 불결한 행동도 하시고 애먼 소리로 내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

나를 쳐다보는 촉촉한 눈빛이 간절한 것 같기도 하여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무어라 말하고 싶어 입을 달짝인다. 그러더니 팔을 뻗어 내 목을 보듬는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는 내 팔에도 힘이 들어간다.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오늘 그녀의 표현은 나를 놀라게 했다. 바삭 마른 겨울나무 같은 그녀에게서 연한 연듯빛 줄기 하나를 만났다. 여러 날을 만났지만, 그냥 멀뚱히 지나가는 이를 바라보듯 아무 감정표현이 없던 터였다. 웅알이하는 아기 대하듯 나 혼자 말하고, 따뜻함을 전하는 몸짓을 했었지만 그녀는 말라버린 표정이었다. 마른 등치 어디에서 물기를 받아들여 연한 순을 내밀었을까. 언제 말라버릴지 모를 애처로운 모습이지만 반갑고 사랑스럽다.

그녀를 보고 있자면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 아득하기만 하다. 그녀와 어머니는 치매와 함께 미로를 가고 있다. 내가 할 일은 어머니와 그녀의 미로에서 따뜻한 빛을 만들어 주는 것이리라. 치매의 길을 막아서서 이 길만은 가지 말라고 막는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병숙

III

「회색빛 웃음」

「잔챙이」

희색빛 웃음

이병숙

우수가 지나니 날씨가 제법 포근해졌다. 서랍 정리를 하다 흑백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유난히 웃음이 많았던 그녀, 사진 속 그녀의 웃음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밖으로 나왔다.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40여 년 전을 되돌아봤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어느 생산 현장에서였다. 그날도 오늘처럼 포근한 봄날이었다. 지상의 모든 만물들이 생동감을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기, 그녀와 나는 스무 살의 풋풋함을 가슴에 머금은 채 저만치 떨어져 있는 현실 같증에 목말라했다. 때로는 불확실한 앞날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서러워하기도 했다.

그녀의 최종 학력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 전부라 했고. 올바른 셈법과. 한글도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서 혼자 터득한 받침 없는 글자로 일기를 쓰고 있다고 했다. 가끔은 틀린 글자를 물어오기도 하고 수정해 달라고도 했다. 그렇게 우린 더 각별해졌고 어려울 땐 서로 도우며 지내던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너는 죽으면 무엇이 되고 싶냐." 나의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는지 그녀가 바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죽을 때 도토리를 입에 물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 도토

리나무가 날 테니 너는 새가 되어 그 나무 위에 와서 놀아라." 그녀의 농담처럼 던진 말에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참을 깔깔대며 웃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취방에 가보니 이불을 뒤집어쓴 채 조금의 미동도 없었고 몇 개의 술병과 약병이 텅굴고, 쓰다만 일기장의 서툰 글씨가 말없이 머리맡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공원 옆 어린이집이 파했는지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어린이들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푸른빛, 노란빛으로 느껴진다. 그녀의 웃음 빛깔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깨닫지 못한 회한이 가슴을 저미고 지나간다. 지천명의 나이가 되고 보니 웃음에도 빛깔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다. 아마도 그때 그녀의 웃음은 진한 회색빛이 아니었을까 싶다. 웃음이라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만이 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녀의 웃음 하나하나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들어있었다. 견딜 수 없는 좌절 속에 택한 길, 그녀가 가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른 봄날, 푸른 하늘과 맞닿은 듯 맑고 푸른 꿈을 머금은 아이들의 해 맑은 웃음, 희망에 가득 찬 개나리꽃 같은 노란 웃음이 부럽다. 오래오래 퇴색되지 않도록 지켜 주어야 할 책임을 느끼며 일어났다.

잔챙이

이병숙

정년을 맞은 남편이 소일거리로 텃밭에 감자를 심었다. 우리나라 기후 상 대부분 유월 중순쯤이면 장마가 시작되고, 감자는 수확기를 맞는다. 물을 싫어하는 감자는 장마 전에 수확해야 저장에 좋다고 한다. 곧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에 감자를 수확하러 남편을 따라나섰다.

앞에서 썩을 걷어내던 남편이 "잔챙이는 골 밖으로 던져 버려라."라고 했다. 보라색 감자 꽃은 땅속에 감자알을 떼어놓고 독으로 처박힌다. 나는 땅속에서 감자를 꺼냈다, 튼실한 것은 소쿠리에 담아 껍질이 상하거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히 다뤘다. 간혹 양분을 고루 받지 못해 잔챙이가 나오면 골 밖으로 던졌다. 그래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수확이 끝나고 처음부터 소쿠리에 담긴 감자는 탕글탱글하게 인물이 났다. 감자 소쿠리를 들고 앞서가는 남편 뒤를 따르다 골 밖으로 던져진 잔챙이에 시선이 갔다,

내 아버지의 기억이 여덟 살에서 끝이 나고, 운명적으로 나는 젊은 과부의 맏딸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식모살이를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다. 엄마는 가마솥에 물을 데워 커다란 고무 물통을 뒷방에 놓고 목욕을 시키며 “내일 영희 엄마가 데리

러 오면, 서울에 군 대령 집으로 식모살이를 가라 하셨다. 목욕을 하는 나도 목욕을 시키는 엄마도 얼굴에서 물이 흐르긴 마찬가지였다. 왜, 목욕을 시키며 식모살이를 가라는 말을 전했는지 지금은 알 것 같다. 나는 윗마을 선배 언니가 청주로 식모살이를 갔다가 주인집 아저씨 애를 가졌다고 어른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적이 있다. 겁이 났다. 엄마도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밤새 코를 푸는 소리가 났다. 내일 해가 뜨면 나는 식모살이를 가야 한다, 소매가 다 젖도록 훌쩍이다 날은 밝아오고 피를 썼다. 식모살이를 가면 안 될 것 같아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중학교를 보내주면 어른이 되어서 꼭 갚겠다고. 날이 밝기 전에 뒷문으로 빠져나와 학교로 갔다. 이렇게 해서 식모살이는 면했다. 선생님 손을 잡고 중학교 입학하던 날 한 약속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삶에 지주 돌 같은 역할을 한다.

떡거리가 부족했던 시절 강원도에 인접한 충청도의 척박한 산간 지역에선 감자가 주 농사였고 주식이기도 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잔챙이는 주인의 간택에 따라 물에 넣으면 온몸이 썩는 줄 알면서도 좁은 항아리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깨끗이 씻어서 항아리에 넣고 물에 담가 밀봉하여 썩기를 기다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체에 걸러 몇 번이고 우려내어 뽀얀 녹말가루를 만든다. 이것으로 떡을 만들면 쫄득하고 근사한 떡거리가 된다.

돌아보면 나 또한 잔챙이 감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홀어머니의 만팔로 유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아픔이 참 많았다. 주경야독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생산현장에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간 기

능 저하증, 과로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눈이 노래지고, 황달기도 왔다. 그러나 잔챙이 감자가 좁은 항아리 안에서 육신을 썩혀가며 숙성되어 녹말가루, 먹거리로 재탄생되듯 나는 홀어머니의 맏딸이고 언니, 누나란 사실을 거부할 수 없었다.

*잔챙이 : 씨알이 굵지 못하고 자잘한 감자

이예경

III

「알뜰한 당신」
「버킷리스트(Bucket list)」

알뜰한 당신

이예경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한다. 버려라, 못 버린다 하며 겨루다가 나는 급기야 마누라까지 갖다 버리라고 비아냥댄다. 남편은 곧 궁상 그만 떨러며 나무란다. 부부의 소모성 언쟁은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알뜰을 궁상이라 치부하면 내가 설 곳이 없다. 자신을 알뜰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것이 분명 좋은 습관인데도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다.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것이면 버리라는 남편에게 시빗거리를 주기 싫어서였다. 그러면서도 어느 구석엔가 보관해 놓은 물건이 있어 든든했다. 내 결혼식에 입었던 옷과 신발도 그이 몰래 숨겨두었던 물건 중 하나였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지냈던 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다시 멀리 가게 되니 가재도구는 필요하지 않고 예식 준비만 하면 되었다. 한복은 유행이 있어 옛날 옷을 입을 수 없지만 속옷과 신발은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혹시나 하고 꺼내 보니 삼십여 년 전 그대로였다. 언젠가는 쓸 일이 있으리라 생각했던 나의 믿음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흐뭇했다. 다시 꺼내서 확인하고 머리맡에 챙겨두니 소풍 가기 전 아이처럼 마음이 들떴다.

결혼 날이었다. 화촉 점화 연습을 위해 단상으로 걸어갔다. 조심스럽게 한 발을 떼어 놓는데 갑자기 기우뚱하며 중심을 잃었다. 허우적

거리다가 겨우 바로 섰다. 이틀 전 현기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던 일이 생각났다. 최근에 연달아 일어났던 강도 높은 지진과 여진의 공포도 되살아났다.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자 당황스러웠다.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플랫폼 신발 밑창이 떨어진 것이었다.

플랫폼 샌들은 앞뒤 전체를 높인 신발이다. 키 높이가 효과를 위해 만든 신발답게 우뚝 높아서 한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반대쪽 샌들 밑창을 떼고 신으려니 한복 치마 끝을 밟을 것 같았다. 접착제가 있으면 좋으련만 예식장에 있을 리 만무했다. "노끈! 노끈 없어요?" 다급하게 소리쳤다. 다행히 옆에 있던 도우미가 두루마리로 된 연두색 끈을 갖다 주었다. 발등과 샌들 밑바닥을 감고 발목까지 칭칭 동여매어 리본처럼 묶었다. 가만히 허리를 펴고 조심스레 한 발씩 떼어 놓았다.

단상을 향해 반쯤 걸었을까. 이번에는 속바지가 흘러내렸다. 앞이 캄캄했다. 한쪽 손으로 치마 속, 바지를 움켜잡았다. 황망한 중에도 지갑 속 비상용 옷핀이 생각났다. 부랴부랴 탈의실로 달려가 응급조치를 하고 나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우여곡절 끝에 연습이 끝나고 예식이 진행되었다. 행여 실수할세라 한 걸음씩 조심스레 떼놓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고 짧은 거리가 십 리처럼 느껴졌다.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예식이 끝났다는 안도감으로 의자에 털썩 앉았다. 나를 식겁하게 했던 것을 살펴보았다. 신발은 밑창에 붙여놓은 접착제가 굳어 부스러졌고 허리의 고무줄은 삭아 있었다. 삼십 년이 넘는 물건이 제 기능을 못하리라는 생각을 간과한 탓으로 그 사달이 났다. 내가 생각해도 이번 일은 알뜰의 한계를 넘어선 듯싶었다. 쓰임새가 있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 챙겨두고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 다 쓰기 전에 미리 사 놓아야 마음이 놓이니 이것도 병인가.

버리지 않고 비축해 두는 습성으로 집안과 승용차 트렁크는 늘 북잡했다. 고물상 만들 거냐는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생각이 바뀌지 않은 탓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도 여유 공간은 이내 채워졌다. 물건에 갖든 추억이 있거나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것도 병이란다. 심리학을 공부한 딸은 그것을 일종의 강박증이라고 했다. 남편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제발 공상 좀 떨지 말라고 했지만 유비무환의 실천이라며 애써 부정했다.

딸과 사위는 신혼여행 대신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다.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니 개들이 보였다. 딸 부부가 차에서 내려 개를 어루만지는 동안 남편은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차에 올랐다. "이게 무슨 냄새지?" 여기저기 쿵쿵거려보니 남편의 신발에서 나는 냄새였다. 개 배설물을 밟은 것이었다. 빨리 나가라는 성화에 그는 영문도 모른 채 튕겨나가듯 내렸다. 난감했다. 신고 다니던 페트병의 물로 신발 바닥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쓸데없는 짐 신고 다닌다는 잔소리가 미안했던 것일까. 남편이 멧쩍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페트병 덕을 톡톡히 봤네."

며칠 뒤 결혼사진이 도착했다. 한복 치마 밑 발등에 연두색 끈이 살짝 보였다.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남편은 뭐가 그리 우습냐며 같이 웃자고 했다. 통 먹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예쁘구먼, 누가 봤다면 발등에 장식한 줄 알았겠는데" 너스레를 떨었다. 더 좋은 신발을 사주겠다고 미련 갖지 말라고도 했다. 뜻밖의 반응에 내 귀를 의심하고 있는데 남편은 '알뜰한 당신'이라는 덤까지 없어주었다. 기대도 하지 않던 말이었다.

알뜰과 공상의 기준은 꼭 써야 할 때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

라 생각한다. 공상이 알뜰로 보였던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그가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다. 객관적인 잣대에 맞추려는 남편의 변화가 반갑기 그지없다.

버킷리스트(Bucket list)

이예경

오랜만에 영화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떤 프로를 상영하고 있는 지조차 모른 채였다. cheer up(힘내)이라는 부제에 끌려 죽기 전 꼭 해보고픈 일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택했다. 우연히 만나게 된 영화 속으로 흠뻑 빠져들었다. 96분간의 시선 고정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몰입되었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의미이리라. 영화는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생각하게 했다.

자동차 정비사인 카터와 엄청난 부를 가진 에드워드는 병실에서 만난다. 전혀 다른 삶을 산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친다. 앞만 보고 살아온 이들은 길어야 1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되고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가까워진다. 카터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다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없으리란 생각으로 구겨 던져 버린다. 주워서 읽게 된 에드워드가 흥미롭게 생각하며 돈을 댈 테니 함께 실행해 보자고 한다. 절친한 친구가 된 두 사람은 실행에 옮기기 위해 길을 떠난다.

스카이다이빙을 시작으로 카터가 자동차경주를 할 때는 내 발끝에 힘을 줄 정도로 흠뻑 빠져들었다. 실행한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며 만족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느꼈다. 저승에 갔을 때 신의 질문이라며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는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기쁨을 준 적이 있는가를 상대에게 묻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숙연해지는 대목이었다.

매장하면 다시 살아날까 걱정이고 화장하면 뜨거울 거라며 농담인 듯 진담인 듯 장례 방법에 대해 주고받는다. 화장하여 재를 커피 캔에 담아 경치 좋은 곳에 두는 게 좋겠다고 했다.

카터는 버킷리스트를 전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에드워드스 함께 실행하지 못한 리스트를 실천에 옮기며 하나씩 지워나간다. 결국, 그도 몇 년 뒤 죽게 된다. 기상 악화로 정복하지 못했던 히말라야산맥 정상에 먼저 간 카터 옆, 커피 캔에 재로 담겨 나란히 놓인다. 카터가 죽으면 인스턴트커피 캔에 담기길 원했기 때문이다. 비서가 마지막 버킷 리스트였던 ‘장엄한 광경보기’를 지운 메모지를 두 캔 사이에 끼우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야기가 슬프지 않았고 잔잔한 웃음과 감동까지 안겨 주었다. 결국, 두 사람은 불가능할 듯했던 마지막 리스트까지 이루었다. 평생 해보지 못한 일, 하고봤던 일을 하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는 두 주인공의 삶이 멋져 보였다. 영화 속에서 ‘자신의 죽는 날짜를 알고 싶은가?’를 물었더니 100명 중 4명만이 그렇다고 했다. 짧은 여생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기에 모르고 살 때와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을 듯하다. 또한, 떠나는 이도 보내는 이도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신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발목을 잡는 불상사는 없길 바라면서 목록을 작성해 보았다. 가보지 못한 외국에 혼자 여행하기,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공간 마련하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기, 비우고 내려놓기, 멋대로 찍은 사진 엮어 보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하기, 인간관계 정리하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관심 두고 살갑게 대해주기, 문서화 하고 나니 책임감과 부담감이 백배다. 자신

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겠기에 아, 목록에 적지 못한 한 가지가 생각났다. 때로는 유치하게, 되는대로 살아보기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기에 포함된 의미인지 모르겠다.

무언가가 나를 옥죄고 있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무언가를 행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했다.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닌데 늘 그렇게 자신을 닦달하며 살았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로 살아보고픈 게다. 자신을 놓아주기.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마치 내 상황을 알기라도 한 듯,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삶은 단지 순간일 뿐, 누리면서, 사랑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기를 꿈꾸는 나를 행여 끌어들일까 봐 ‘내버려둬’라고 답했다. 보내고 나니 오해의 소지가 염려되어 ‘자신도 옆 사람도’라고 덧붙였다. 다행히 남편이 더는 연결하지 않았다. 이번엔 차근차근 실천해 볼 요량이다. 죽기 전 꼭 해보고픈 리스트라 하기에엔 너무 소박하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큰 동그라미에 그려 넣었던 생활계획표가 최초로 만든 나의 계획표였다.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했던 건만 연말이면 늘 후회를 되풀이했다. 성인이 된 후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고픈 일의 종류가 많아졌고 좀 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이 달라졌을 뿐이다. 삶은 계획하고 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버킷리스트는 자신을 다독이고 일깨우는 계기가 되리라. 영화에서처럼 그저 담담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

실행하기 쉬운 일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미리 느껴보는 성취감, 정리되어 가는 느낌도 좋겠다.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더 짧을

인생이다. 이 목록들이 하나씩 지워지면서 죽을 날이 가까워져 온다 해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지워나가는 행복감을 빨리 느껴보고 싶다.

임향식

III

「감서리」
「바람의 행적」

감서리

임향식

땀기 머리 규수들이 달빛 반대편으로 달음박질치고 있다. 껍껍 턱까지 차오른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사력을 다해 뛰어가고, 그 뒤를 땀범벅이 된 한 사람이 따라붙고 있었다.

어른들이 출타한 빈집, 밤이 되자 혼자 있기가 무서웠던 옥자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미숙이, 혜영이, 경원이, 은영이 짐성촌 같은 성을 가진 일가 딸네들이었다. 모처럼 어머니의 시야에서 벗어난 처녀들은 호롱불 앞에 모여앉아 도란도란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가슴속에 감춰뒀던 수줍은 애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초경을 할 때 생리대를 만들 줄 몰라 당황했던 일, 꽃봉오리처럼 봉긋이 솟아오른 가슴을 남들이 눈치라도 찰까 봐 치맛말기로 푹푹 여미고 다닌다는 이야기에는, 지나가던 바람도 숨을 죽였다.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이며 민족주의를 대담하게 표명했던 춘원 이광수의 『무정』에 대해 논하다가 책 속의 인물이 등장할 때쯤 은영이의 뺨속에서 꼬르륵 신호음이 울렸다. 눈치 빠른 미숙이가 바람을 넣는다. "그래! 우리 출출한데 안동할때 감 밭에 단감 따러 갈까?" 혜영이도 좋아하며 의견을 같이했다 "말뚱만 굴러도 웃음이 난다."는 청춘들, 까르르 한바탕 웃음보를 터트린 뒤 "옥자야 넌 집 보고 있어 우리가 단감 따올게" 경원이가 정의를 내렸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빙그르르 탕자나무 울타리를 돌아서 쪽문으로

들어선 그녀들, 집 나설 때의 자신감은 간곳없고 오그라드는 간담을 쓸어내리며 감나무에 올라섰다. 이리저리 감을 찾아보지만 아직은 무성한 잎 사이에 숨은 설익은 감을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듬더듬 시간은 흐르고...

집에서 기다리는 옥자는 궁금중에 조바심을 내다가 살금살금 사립문을 나서는데 초당 위에 하얀 박꽃이 함박웃음으로 반긴다. 달빛에 사원 별들이 도란도란 말을 걸어오고, 귀뚜라미, 여치, 배짱이, 풀벌레들의 울음소리 열아홉 소녀의 감성 속으로 차곡차곡 들어앉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의 합창, 박자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발자국을 옮겨놓자 긴 다리로 성큼성큼 먹이를 쫓던 황새는 등지로 돌아가고, 천적이 사라진 무논에서 우렁이가 나락 잎을 갉아 먹는 소리인지, 사락사락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인지, 넓은 들녘 건들건들 잘생긴 총각 하나 걸어 나오는 듯 온종일 새 쫓던 허수아비 논두렁에 즐고 있다.

옥자는 감나무 가지에 걸린 눈썹달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인기척을 확인한 후 살금살금 동무들 곁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지르는 외마디소리, “들켰다 빨리 도망가자!” 친구들은 일사불란하게 감밭을 빠져나갔고 놀란 옥자도 그 뒤를 쫓기 시작했다, 앞에서 뛰는 친구들은 옥자가 감밭 주인인 줄 알고 줄행랑을 놓는데 옥자는 혼자 뒤쳐진 불안감에 합세하려는 전력 질주였다.

저들끼리 쫓고 쫓기는 입장을 만들어 젓 먹던 힘까지 내고 있다. 논둑길 발둑 길로 질퍽이다가 아랫마을거처 헌강왕 능 정강 왕릉을 찍고 솔밭을 빠져나와 서출지를 돌고 윗마을을 돌아 탐마을 골목길에 들어섰다. 휘청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가누고 죽음을 뱉어내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옥자 집 방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차례로 엮어졌다

뒤이어 옥자도 그 위에 앉았고 그들은 한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은영이가 먼저 털고 일어나 땀범벅에 과김치가 된 옥자를 보고, "야! 넌 왜 그래? 어떻게 된 일이야?" 모두들 정신을 차린 뒤 허심탄회하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니, 하하 호호 쥐어박고 넘어지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린 채 헛고생만 했다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서출지에 낚시하러 가던 사람이 못 독에 코고 무신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며 혹시 무슨 일이나 없는지 식구들 잘 챙겨보라고 방송을 의뢰했다는 이장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집집이 전달되었다. 주민들은 궁금증에 귀를 안테나처럼 세우고 술렁술렁 이장 댁으로 모여들었다.

옥자네 집에는 밤잠을 설친 처녀들이 새벽 단잠에 빠져있을 때쯤 엄마들이 앞 다투어 찾아 들었다. 출석을 부르듯 차례로 호명되어 얼떨결에 꿀잠이 동강 난 처녀들을 바라보며 영문도 모르고 무사한 걸 확인한 엄마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내송쟁이 은영이가 잃어버린 신발을 엄마한테 어떻게 이야기할까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아침이었다.

이 이야기는 큰언니의 오래된 추억담이다. 한동안 모이기만 하면 그때 그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수십 년을 전해오면서 이미 전설이 되어버렸다. 지금 그들의 나이는 칠십 대 후반, 초롱초롱하던 눈망울은 희미하게 초점을 잃어가고, 정신은 들쭉날쭉 판단력이 흐려졌다. 균형 잃은 체형에 O자형 걸음걸이, 가는귀가 어두워 언성은 높아져도 그들의 수다는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다시 꽃으로 피고 있다.

바람의 행적

임향식

해는 하늘과 땅 사이로 사라졌다. 그곳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해가 진 서쪽 하늘에 불꽃이 훑훑 타고르고 구경나온 흰 구름도 먹구름도 붉은 물이 들었다. 내일 아침 동해에 떠오르기 위해 그도 지구 반대편에서 술한 고해를 감내하고 있나 보다.

태어난다는 것은 맑고 신비로운 것이거늘, 힘찬 울음으로 티 없이 태어난 아기가 어른이 되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한세상 허겁지겁 살다가 저녁나절 철이 들어 속을 붉게 태우고 있다.

인간도 한낱 자연의 일부인 것을!

동심의 행적들이 고스란히 남은 내 고향 경주 남산, 우리 오빠 장가 가던 날 아침이었다, 사모관대 갖추어 조상님께 인사 올리고 다시 개복(改服)을 했을 때, 스물한 살 그 모습이 어찌나 어여쁘던지.

바지저고리에 옥색 모시 도포 입고, 허리에는 예쁜 수술이 달린 끈으로 장식하고, 머리엔 갓으로 의관을 정제했다. 그것은 장가간다는 신고로 집안 어른들께 인사차 한 바퀴 돌아야 했기 때문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땐 의미가 조금 달랐다.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가 아니라, 결혼식 날만이 할 수 있는 의례였으니까.

그때가 엇그제 같은데, 탕글탕글 건드리기만 해도 터져버릴 것만 같은 불살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주름을 밀 듯 탄력 잃은 걸음으로 팔순을 목전(目前)에 두고 시체를 지내기 위해 휘휘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랐다. 자식들은 묘사 같은 건 안중에 있는지 없는지, 잔(醜) 칠 사람, 그리고 제물 운반할 사람이 없다는 호출을 받고 출가 외인 네 자매가 출동했다.

거기엔 오빠의 고집이 한몫했다. 공휴일로 날짜를 바꿔 지내면 자손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옛날 공휴일과 무관하던 농경 사회에서 좋은 날을 받아 지내오던 전통의 그 날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묘사란, 4대 봉사를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5대부터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사를 모시긴 하나 그래도 친기를 빠트리기 서운한 나머지 4대까지는 대소사(大小家)끼리 시월 보름날 일제히 사산묘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가문의 풍속이다

육남매 맏이로 태어난 플레이보이 기질이 다분하던 우리 오빠, 책임도 중했지만 젊은 날 잘 나가던 때도 있었다. 서울 생활하면서도 출중함이 돋보였던 인물값치고는 너무 비싸게 치렀다고나 할까. 자신(自身)을 관리하지 못하고 많은 재산 허공에 다 날려버린 배후에는 당연히 여자가 있었다.

며느리 아닌 다른 여자가 어머니를 찾아와 곱살맞게 내숭으로 일관하는데, 반겨 맞아 줄 수도 없고 아들의 서슬에 배척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어머니는 힘든 순간을 간신히 모면하고 나면 안정을 찾기도 전에, 다시 며느리가 찾아와 원망을 퍼부었다. 당하는 어머니도 대드는 며느리도 그 속은 생살을 후벼내는 아픔이었으리라

바보같이 올라미에 썩었었나! 헛디딘 오빠의 발자국엔 어머니의 눈

물이 흥건했다. 늘그막에 미미해진 생활고로 고생도 하셨지만, 자식 걱정애 노심초사하시다가 정신적 혼란에 빠져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시누이의 본성이었을까. 우리는 오빠를, 미워할 수 없었다. 속담처럼 팔은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진했다. 남편을 잘 다독여 가정을 건사하지 못하고 별집처럼 만들어버린 것에 대하여 울케도 무관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순간의 환란을 평생을 우려먹는 울케의 잔소리가 과하다는 생각에 오빠가 안쓰럽기까지 했다.

그래도 끝까지 가정을 지켜준 울케언니가 고마운 건 엄연한 사실이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긴 하지만, 넉넉지 못한 노후라도 만들어준 것을 생각하면 오빠는 물론 오빠를 감싸며 마음속으로나마 한편을 먹은 우리는 단체로 석고대죄를 한다 해도 부족할 것이다.

남산은 국립공원이기도 하지만 경주시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어 산소를 모두 이장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개인 산은 물론 문중 산 몇 곳도 모두 관내에 있어 수백 년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그 많은 조상을 어떻게 어디로 이장을 해야 하나? 넓은 산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

오빠는 일곱 살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랑을 못 잊어, 어린 나이에 할머니 산소에서 날밤을 새우다가 아버지가 찾아와 업고 내려가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다고 했다. 오빠는 오늘도 할머니 산소에 엎드려 일어나질 않는다. 그는 긴 절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울적 그의 등에 동생들의 눈물이 소나기처럼 번졌다.

오빠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오빠가 떠난다 해도 안착할 곳이 현재로는 없다. 내 땅에서 쫓겨난 조상들은 어디로 모셔야 하며, 산소

에 절을 올릴 자손들은 있을까, 조카들은 일한다는 핑계, 멀리 있다는 핑계로 조상에 관한 일은 관심 밖으로 미뤄 놓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깡그리 화장하여 흔적 없이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나!

옛날 부모님 슬하에서 우리 육 남매는 사랑 듬뿍 받으며 다복하게 살았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도 우리는 우애가 남달랐는데, 맏이인 오빠가 막중한 임무를 끝맺음할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안고, 불계 타는 황혼 길에 잣대를 놓고 있다.

정경남

III

「동상이몽(同床異夢)」

「집에 가는 길」

동상이몽(同床異夢)

정경남

객석에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무대에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와 의자가 오롯이 조명을 받고 있었다. 피아니스트가 등장하기 직전이었다. 사람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기침을 토해냈다. 적어도 40분 남짓 동안에는 허용되지 않는 잡음이다. 들숨날숨 하는 숨소리도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기침소리가 잦아들 즈음 나는 옷옷을 벗었다. 콘서트하우스 밖은 벚꽃 잎이 어지럽게 휘날리는 꽃샘추위로 쌀쌀했지만, 실내는 외투를 입고 있기엔 약간 거북스러울 정도로 더위가 몰려왔다. 겹옷을 벗어 조심스럽게 개어 무릎에 올렸다. 오랜만에 듣는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라 마음이 설렸다.

피아니스트가 등장하고 객석은 박수소리로 요란했다. 연주자는 고개 숙여 정중한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아 자세를 가다듬었다. 잠시 동안 실내는 귀먹은 세상이 되었다. 그의 손이 건반에 올려 지자 침묵의 세상은 온통 그가 만들어 내는 소리로 가득해 졌다. 깊은 물속에서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을 치듯 그의 손가락은 일렁였다. 눈에서 귀로, 그 소리를 따라 그가 인도하는 곳으로 마음의 여행을 나섰다. 나폴리 풍으로 연주한다는 팸플릿의 해설을 떠올리며 나폴리로 향했다. 바다가 보였다. 잔잔한 물결에 하얀 요트가 느린 속도를 유지하며 물살을 갈랐다. 평화로운 선율은 순한 물결이 되고 요트와 물은 한

몸이 되어 어우러졌다. 해안선이 보이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요트에서 내렸다. 좁은 길이 여기저기 보인다. 어느 쪽이든 괜찮았다. 문득 아이들의 해맑고 경쾌한 몸짓이 유연하게 골목길을 감고 있다. 그 길을 쫓아간다. 빠르다. 갑자기 소리가 따갑다. 눈을 떴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팸플릿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물가에 얼어놓은 생선처럼 파닥파닥 소리가 났다. 염소수염을 기른 남자는 그 소리를 의식했는지, 나를 의식했는지 부채질을 멈추고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다. 나는 다시 여행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 여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자의 부채질은 간간히 다시 이어졌고 그 때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옆을 돌아봐야했다.

‘웃옷을 벗으면 참 좋을 텐데...’

45분의 연주가 끝나고 인터미션이 있었다. 거의 부동의 자세로 집중하느라 몸이 빠근했다. 잠시라도 근육을 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출입문 옆에 있는 안내원용 의자에 앉아 내 자리 쪽을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15분의 휴식시간동안 그는 앉은 자리에서 손부채를 부치다가 성에 차지 않았는지 다시 팸플릿으로 부채질을 했다.

다시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울리고 조명이 어두워졌다. 실내가 조용해지고 피아니스트는 모습을 드러냈다. 관객들은 더 큰 박수로 피아니스트를 맞이했고 그는 웅장하고 화려한 소리로 답을 했다.

이번엔 베토벤과 함께 하는 여행이었다. 빠른 손놀림으로 시작되는 연주곡은 나를 재촉했다. 단체 여행객 틈에 끼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내가 보였다. 주어진 시간에 여러 목적지를 여기저기 다니느라 마음이 급했다. 숨 가쁘게 이어지는 연주에 마음 걸음이 차차 익숙해질

즈음, 단조풍의 음악이 이어졌다. 강가에서 나른해진 다리를 뻗으며 숨고르기를 해도 좋은 박자였다.

그것도 잠깐, 종이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가녀린 음표를 꺾고 귀에 닿았다. 옆에 앉은 남자는 더 세차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 부채질 때문에 여행은 막다른 골목에서 끝이 났다.

마지막 연주도 끝났다. 힘찬 박수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브라보를 외쳐댔다.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던 옆자리 남자는 뭐가 그리 급한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다. 자연스럽게 나는 그의 웃웃으로 눈길이가 갔다. 벗지 못한 그의 웃웃은 한 눈에 봐도 고급스런 누비상의였다. 웃웃을 벗지 못한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첫째. 웃웃을 벗으면 배가 두드러지게 나온다.

둘째. 클래식 콘서트에서 상의를 벗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셋째. 상의 안에 입은 옷에 구멍이 났다.

넷째. 신사는 아무리 더워도 상의를 벗지 않는다.

벗을 수 없는 그의 웃은 거북이의 단단한 등딱지와 다르지 않았다. 혼자서는 벗을 수 없는 철갑이였는지도 모른다. 어찌면 이 음악회는 어쩔 수 없이 끌려 온 *아레나였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끝까지 잘 버텼다고 박수라도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가 떠난 빈자리에 그가 내내 부채대신 사용했던 팬플릿이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다. 왜 그것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검투사의 검으로 보일까?

*아레나: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집에 가는 길

정경남

기차는 어둡해서야 도착했다. 내 뒀에는 조금 서둘러서 날 밝을 때 도착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쉽게 이야기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 하룻밤 더 있다 가라고 하는 걸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기차표를 샀다. 바쁜 일이 뭐 있겠나. 싸한 바람이 문제였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대니 며칠 비운 집이 그리웠다.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따라 바람은 칼칼하게 날을 세우고 있었다.

목을 잔뜩 움츠린 채 얼른 지하도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실었다. 아래쪽에 비스듬히 서있는 외국인이 눈에 띄었다. 그는 품에서 천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제야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지점에 한 남자아이가 엎드려 있다는 걸 알았다. 둥근 플라스틱 그릇을 두 손으로 잡고 쪽 앞으로 내밀고 허리춤은 맨 살이 드러나 있었다.

손을 더듬어 지갑을 찾았다. 지갑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얼마 후에는 열차가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도착할 텐데.... 들고 있는 짐 때문에 손이 자유롭지 못했다. 급한 마음에 짐을 다 내려놓고 가방을 더듬었지만 지갑은 내 손길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 박혀 있는 모양이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중

이 좁은 망태 할아버지나 걸인들이 우리 집 대문 안으로 들어 설 때가 종종 있었다. 남루한 행색을 한 그들이 생경하고 무서웠다. 엄마는 문을 삐죽이 열고 들어서는 이들에게 밥이나 쌀, 더러는 돈도 주었다. 어떤 것을 적선할지, 그 기준이란 것이 묘해서 엄마의 기분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남루함의 정도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는 빈손으로 보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결국 나는 그 아이를 지나치고 말았다. 그가 원하는 것을 제때에 줄 수 없었으니 지나칠 도리밖에 없었다. 등이 좁고 가녀린 걸로 봐서는 열서너 살이나 되었을까. 그 아이는 집이 있을까? 집을 나온 아이들이 많다고 했다. 가출 청소년들과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다. 청소년기에 부모들의 무관심이나 지나친 억압 때문에 가출하는 아이들은 한 두 번씩 구걸을 해 본적이 있다고 했다.

한동안 지하철역 입구에 앉아 있는 걸인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실린 먼지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옆드려 있는 그들에게 동전 몇 푼이라도 넣어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았다. 어떤 친구들은 구걸하는 이들을 따로 관리하는 우두머리가 있다고도 했고, 자꾸 적선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 이들이 더 많아진다고도 했다. 정말 그럴까.

언제부터였을까. 내게도 그들이 거리의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마음을 닫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주머니에 손 넣는 일이 귀찮아지고 그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 ‘나도 힘든데’라는 말로 스스로 위로했다.

집으로 가는 길, 시장기를 메우려고 김밥 집에 들렀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좀 전에 본 아이의 뒤통수가 눈에 밟혔다. 냉한 바닥에 옆드려 얼굴을 들지 못하는 아이가 행여 우리 사회의 차가운 인

정을 너무 빨리 알게 되면 어쩌나, 자못 염려스러웠다.

다시 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으로 저릿한 날이다. 그 아이의 모습
이 순환버스처럼 다시 돌아와 있다. 이렇게 바람이 세찬 날은 천
원짜리 두어 장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일인 것을.

정충양

III

「가을의 상념」
「인생 우(右)클릭」
「시골영감 상경기」

가을의 상념

정충양

몇 십 년 만에 찾아온 더위라고 너나없이 아우성을 쳤다. 하지만 지금은 그 더위가 언제였던가 싶다. 몇 주째 주말마다 내리는 가을비 탓인지 오늘 아침에는 장롱 속에 버려두다시피 잊고 있었던 긴팔 티셔츠를 부랴부랴 찾아 입고 집을 나섰다.

코끝을 어루만지는 싸하면서도 약간의 습기를 머금고 있는 가을 아침의 공기는 일말의 추위마저 느끼게 한다. 순면의 녹색 티셔츠와 진녹의 가을점퍼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양 어깨를 따스하게 안아준다. 이 기분 좋은 느낌의 아침은 오늘 하루의 긴장까지도 편안하게 풀어줄 것이라 기대를 해본다.

지난여름, 모든 것을 태울 듯 이글거리던 뜨거웠던 태양도 호박꽃이 시들어가던 무렵의 지독했던 스물한 살 연애의 순간을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이 가을 앞에서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무력해지고 있다. 여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이어지는 시간의 연장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 주는 제한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연명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나는 오늘도 경북대학교 북쪽 문과 연결된 나지막한 담 옆 보도블록을 밟으며 다가오는 가을을 읽는다. 머지않아 이 길은 또 가을이 벗어놓은 노란 은행잎과 갈색 버즘나무 껍질로 채워질 것이다.

시계는 출근 시간을 10분 남겨둔 시점에서 퀘도를 걸코 벗어남이

없이 달리고 있었다. 접과 왼쪽 소매 끝에는 아이들이 몇 년 전 회갑 기념으로 사준 명품 손목시계가 달랑거리고 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이 시계를 자랑삼아 차고 다녔다. 시계 자체의 모양도 남다르거니와 뒷면에는 내부가 누드 처리되어 속이 훤히 보이는 것이 보면 볼수록 여인의 속살을 남몰래 훑쳐보는 것 같은 간지러움도 있었다. 그러나 처음의 즐거움도 잠시였다. 운동할 때는 시계를 별도로 가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혹시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과민함도 생겨났다. 내게는 너무나 과분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언뜻 뇌리를 스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평소 애용하던 가볍고 오래된 시계에게로 은연중 돌아가게 되었다. 최근 서늘해진 날씨 탓에 장롱을 뒤지다가 불현듯 깊이 넣어두었던 명품시계를 대면하니 문득 이걸 선물한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밀려왔다. 지금 안차면 언제 이놈을 팔에 매달아 보겠나 하는 남은 시간에 대한 강박감도 생겼다. 잠자던 녀석을 깨워 시간을 맞추다 보니 어쩌다 분침이 1분이 늦게 되었다. 어둔한 숨씨에다 귀찮기도 해서 그냥 다니기로 했다. 그러나 단순한 이유로 1분이 늦게 가게 된 시계를 볼 때마다 단순하지 않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평소부터 모든 약속에서 나는 늘 5분 전 도착이고 상대가 늦으면 이해는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은 늘 찝찝했었다. 그러나 1분 늦게 달려가는 나의 시계를 바라보면서 비록 1분일 망정 상대의 지연에 대해 이전보다 관대하게 됨으로써 기다림에서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다. 그 1분의 편안함이 나는 참 좋았다. 지금껏 한쪽만 바라보았던 동전의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았다. 내려놓으니 편해졌다는 어느 선각자의 깨달음에 공감하면서 남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명품시계가 비로소 명품이 된 것 같다.

인생 우(右)클릭

정충양

나에게 왼쪽 DNA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상생활은 오른손으로 하는데도 바둑은 왼 손으로 둔다. 닭싸움도 왼발을 주축으로 하고 화투 패를 나눌 때도 왼손을 사용한다. 40년을 즐겨하고 있는 테니스는 오른손으로 하지만 포지션만큼은 왼쪽이 편하게 느껴졌다. 어쩌다 오른쪽에서 보면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나머지 엉뚱한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무래도 왼쪽 DNA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테니스에서 만큼은 왼쪽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테니스 동호인들이 주로 하는 복식 게임에서 오른 손잡이를 기준으로 볼 때 편의상 오른쪽 포지션을 포(듀스코트), 왼편 포지션을 백(에드코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포 쪽은 백 쪽에 비해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다. 반면에 백(에드코트)은 상대의 로브나 발리가 자신의 포 위치에 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만큼 득점할 수 있는 찬스도 많이 생기고 전략적인 면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알려져 있다.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통상 실력이 좀 더 낫다고 여겨지는 편이 백 쪽(에드코트)을 맡고 보조적인 입장이 포 쪽(듀스코트)을 맡는 경우가 많다. 처음 만나 페어를 정할 때면 상대방의 실력을 가늠하면서 은근히 역할 분담에 자존심이 걸린 가벼운 신경전이 있기도 한다. 동호인 클럽에서 오랜 동안 꾸준하게 운동을 해 왔던 나는 백 쪽(에드코트)에 나

름대로 자신을 갖고 있었다. 백 드라이브기술 하나를 연마하기 위해 장기간 집중훈련도 했고, 휴일이면 가족의 눈치를 살피며 테니스장에 거의 살다시피 한 때도 있었다. 그리고 자연스레 백 쪽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굳어져 갔다. 어느 날 나는 동호회 후배들로부터 “동급 최강!”이라는 애칭 하나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동급 최강’도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때부터인가 동급 최강도 세월을 먹고 있음을 알았다.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젊은 후배들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우 수가 많아지면서 내 포지션이 애드 코트에서 듀스 코트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때서야 나는 동급 최강이란 네 글자 속에 숨어있는 영욕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2선으로, 듀스코트로 밀려난 것이다. 이후 절치부심의 시간도 있었으나 이미 스피드와 파워에서 밀리기 시작한 내 공의 위력은 과거의 모습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왼쪽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고 신체 각 부분에서 알 수 없는 통증, 햄스트링 등 크고 작은 부상들이 이어졌다.

마르티나 힝기스(37·스위스)라는 여자 테니스 선수가 있다. 17살 때인 1997년 호주오픈 여자단식에서 우승하며 '알프스의 소녀'라는 애칭을 얻은 힝기스는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5번 우승했으나 부상과 체력, 결혼 등의 사유로 은퇴와 복귀를 반복하다가 2013년부터 복식 전문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후 각종 대회에서 복식으로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 2017 US오픈대회 여자복식, 혼합복식에서도 우승하여 총 82만 5000달러(약 9억3000만원)를 받았으며 금년에도 각종 복식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단식에서 세계정상에 오를 수 만 있다면 개인의 명예와 부(富)의 측면에서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힝기스는 스스로 복식 전문 선수로 전향하여 현

재도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헝거스의 비움과 극복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 나이와 체력의 부담으로 단식을 포기하고, 2명이 뛰는 복식에 전력을 다하니 단식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이 오히려 나이와 체력의 부담을 극복하는 반전의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호인 테니스에서도 꼭 왼쪽이 아니어도 약간만 자존심을 양보하면 포 쪽도 편해지는 법이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차츰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 정도 몸에 익기도 하고 내 파트너가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해주시 체력도 비축되었다. 내 쪽으로 오는 공만 잘 치면 된다고 생각하니 훨씬 집중력도 높아졌다. 당연히 승률도 높아졌다. 그 전처럼 밀려서 포 쪽을 맡게 되었다는 알팍한 패배감에서 시작하던 출발이 아니었다. 비움으로 편해졌고 양보함으로써 더욱 강해졌다. 세상 일이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 너무 자기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젊은이들에게 양보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실하다 보면 의외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노인이 경험하고 준비해야 될 일 또한 많아졌다. 경제적인 노후자금도 필요하겠지만, 넉넉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절반의 준비에 불과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이해와 양보를 가슴에 새기며 포 쪽을 마다하지 않고 운동장에 나갈 것이다.

시골영감 상경기

정충양

오랜만에 시골 영감이 딸네 집에 가기위해 서울행차에 나섰다. 시집간 딸의 출산도 가까워지고 최근에 딸이 작업실을 이전 했다하니 못 다한 잔일을 해주러 가는 길이다.

과거에 비해 시간적으로는 서울길이 가까워 졌다고 하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대하여 약간의 이중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이 갖고 있는 모든 면에서의 편의성 외에 탁한 공기와 너무나 치열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적 충돌 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생활을 대구에서 보낸 나로서는 지리도 어두운데다 그곳에 터를 잡고 사는 몇 안 되는 친구를 찾는 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애꿎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뿐이다. 그래서인지 비록 며칠이지만 일 년에 한 두 번의 서울거처는 늘 편치 않았다.

서울에 비해 확연하게 공기도 좋고, 앞에는 비슬산 뒤에는 팔공산, 어디든지 내키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많은 마음 편한 대구가 좋다. 그래서 요즘들어 서울 가는 일은 주로 아내가 도맡아 했으나 이번 행차는 부득이 내가 꼭 가야 할 피치 못 할 상황이었다. 게다가 올 들어 제일 춥다는 날에 길을 나섰으니 코끝에 와 닿는 칼날 같은 추위에 눈물마저 핑 돌았다. 그러나 오랜만에 시집간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 끝자락은 추위 속에서도 꿈지락 거리는 설렘으로 가

득해졌다.

아기 때는 병약하여 애를 태우던 딸이 어느덧 건강하게 성장하여 서울사람이 다 되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등학교 때 부터 미술을 고집하더니 당시 대구에서는 일 년에 서너 명도 가기 어렵다는 대학교에 덜컥 합격 해버렸다. 그 후 알뜰한 집안 사정에 딸아이의 힘든 일상은 물론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의 현실도 만만치 않았었다. 해마다 뽕박질 하는 사립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학원비 등 휴학기간까지 포함하여 대학 5년과 대학원까지의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 평소 자립심이 강했던 딸아이가 기숙사를 나와 자취방을 스스로 구했다고 했다. 이사를 하는 날,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허술한 딸의 거처를 확인하고서야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마 딸아이는 부모의 부담을 감안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이사 갈 집을 구했을 것이다. 딸은 당당했고 용감했다. 마치 아마존의 여 전사처럼, 새로운 변화를 즐기는 것처럼 시종 재갈거렸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주체할 수 없는 자괴감과 딸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미안함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체면도 없이 흐르는 눈물은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어졌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낮선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몇 번이나 서울에 오고 몇 년이나 자식들에게 도움 되는 부모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계산도 안 되는 계산을 하면서 자불 자불 줄면서도 눈으로 시간을 여러 번 잰다.

첫아이를 임신하여 몸이 무거운 딸을 대신하여 마중 나올 사위를 생각하니 작고하신 장인어른이 문득 그리워졌다. 생전에 외동딸 사위에게 다정하셨고 IMF 무렵 내가 힘들어 할 때 말없이 사위의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주시던 어른이셨다. 그때는 가족의 의미를 잘 몰

랐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맘을 안다는 옛 선인들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하는 것을 내 앞가림에 바빠서 자식노릇을 제대로 못했던 부족한 사위였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랑하는 방법과 지혜가 부족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시간의 끝에 매달린 이 마음 시린 회한의 굳은살은 결국은 대물림 될 것이다.

겨울 뒤에 봄이 오는 것처럼 헤어짐 또한 아쉬워 말자. 하루 팔만 육천 사백 초! 남은 시간 치열하게 사랑하며 쓰고 가야지.....

III

범어도서관 2018 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
과학·예술융합프로그램 : 쓰다(Write)

<삶, 수필이 되다>

초판 1쇄 찍은날 2018년 12월 07일
초판 1쇄 펴낸날 2018년 12월 14일

지은이 박헌규 외
발행처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범어도서관
누리집 <http://library.suseong.kr/beomeo>
후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감수 및 지도 박헌규
발행인 신종원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시행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범어도서관

출판사 시인보호구역
책임편집 이송우화
전자우편 poetry2000@daum.net
전화 070 - 8862 - 4530
출판등록 제2016-000004호

표지디자인 권찬미
누리집 www.starnpoem.com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40
찍은곳 (주)경북프린팅

© 박헌규 외, 2018

본 도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후원하는 '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 중 (재)수성문화재단
범어도서관에서 진행한 '삶, 수필이 되다' 수업에서 수강생들이 창작한 작품을 모아놓은 수필집입니다.

이 책의 판권은 발행처와 시인보호구역에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발행처와 시인보호구역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인보호구역

삶,
수필이
되다

후
원



한국과학창의재단
Korea Foundation of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시
행



재단법인수성문화재단
범어도서관

이 사업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사업입니다.